



만화 창업주 열전
두산그룹편 | 연강 박두병 (229)



www.ETODAY.CO.KR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뉴스

신문사명: ETODAY (주) | 창간: 2010. 4. 1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7, 15F (우편번호: 151-740)

★지점개설계좌 **업계최저**
온라인주식수수료 0.015%
★전문가의 **무료** 주식상담 서비스

★**중앙** 종합 증권

6월 7일(월요일) [週刊] 제202호

평생직장 원칙 버린 ‘신동빈식 경영’



신동빈 부회장

“동호부지가 개발되면 고용도 늘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이 내려왔어요. 이 회사도 글렀구나 싶어 희망퇴직을 신청할까 했는데 아직 어린 두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대신 136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직원들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부지를 ‘동호부지’라고 말한다. 롯데월드 맞은편 석촌호수 동쪽에 있다는 의미다. 롯데월드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해 직원들 사이에 조만간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작년 이명박 정부가 이 부지에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용하면서 롯데월드 직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월드는 300

롯데 정리해고 등 한국식 구조조정 시작
신격호 회장과 차별화...성공여부 시험대

명을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제2롯데월드가 허용되면서 백지화됐다. 그 사이 회사도 안정을 찾아 올 1분기에는 최근 4년 내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회사는 올 4월 정리해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4년간 손실이 너무 컸다는 게 이유다. 직원들은 반발했지만 결국 지난 1일자로 일반정규직 61명, 특수직(계약직) 75명을 내보내야 했다.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의 경영스타일이 변하고 있다. 롯데에는 다른 기업에는 없는 문화가 있다. 계급 장년제와 평생직장 문화다. 롯데에서는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다시 승진이 어렵다. 그렇다고 직원을 내보내지도 않는다. 승진이 안 되더라도 정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경영진 인사도 마찬가지다. 롯데는 10년 이상 장수하는 경영자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는 일본에서 기업을 시작한 신격호 회장의 경영스타일이기도 하다. 한 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 비해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기업문화가 신격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 부회장이 경영전면에 나서면서 바뀌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 부회장은 먼저 그를 정기인사를 통해 이런 개념을 없앴다. 지난해 임원 50여명을 한꺼번에 못 벗어나니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임원을 퇴출시켰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신 부회장이 아버지의 신격호 회장의 그

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스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풀이한다. 아버지의 일본식 경영방식을 탈피하고 한국식의 무한경쟁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지난 2~3년간 진행된 기업인수합병(M&A) 과정을 보면 신 부회장의 경영스타일은 여실히 드러난다. 신 부회장은 한국 롯데의 경영승계가 공식화된 이후 엄청난 먹성을 보였다. 신 부회장의 롯데는 최근 2년여간 약 4조원을 M&A에 쏟아 부으며 소수 ‘처음처럼’의 제조사인 두산주류BG, GS리테일 등 유통 식품업계 주요 매물을 쓸어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최근 행보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전형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며 “지금은 경영진과 일부 사업부문에 국한돼 있지만 M&A를 통한 무리한 몸집불리기나 내부 위화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17면〉

황익신 기자 philla@



더위도 잊은 동심 “여름이라 즐거워요”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어린이가 분수가 쏟아내는 물기둥을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임영무 기자 darkroom519@

송영길 당선자 CJ·롯데 골프장 조사

시정인수춘 강도 높은 조사 예정...불법 고발까지 고려

CJ그룹과 롯데그룹이 인천광역시에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인천시장 송영길 당선자가 CJ그룹 계열인 CJ그룹과 롯데그룹 계열인 롯데그룹 계열인 골프장 건설 사업 백지화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송영길 당선자측에 따르면 향후 구성될 인천시정인수위원회가 지난 8년간 인수 전 시장 시절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송 당선자가 선거기간 개발 백지화를 주장한 CJ그룹 계열도 프로젝트와 롯데그룹 계열

골프장 개발사업이 중점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송 당선자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의뢰와 사직 당국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의 인천광역시 골프장 사업에 선거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관석 송 당선자 수석 부대변인은 “시정인수위원회 구성은 다음 주 구체화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들의 진행과정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그룹 계열도 프로젝트는 골프

장·마리나 시설·휴양콘도·위터파크·쇼핑몰 등을 갖춘 종합레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이재현 회장은 19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씨앤아이레저산업을 설립해 사업을 직접 추진해 왔다.

하지만 송 당선자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골프도 개발 반대를 내세우는 등 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송 당선자는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계열인 CJ그룹 계열인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선언했다. 롯데건설은 1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1만7000㎡ 부지에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2011년께 개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익신·현유섭 기자 hyson0214@

대기업 출자 ‘미소금융’ 유명무실

정부의 준비없는 성급한 시행 문턱만 높아

삼성·현대차·SK·LG·포스코·롯데 등 6개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저신용 소액신용대출) 사업이 출범 6개월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 등 6개 대기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미소금융재단을 지난해 12월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매년 1000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자해 향후 10년간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

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유명무실할 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각 기업별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출범 후 지난 6개월간 총 대출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 수혜자수도 349명에 그쳐 하루 평균 2명만이 미소금융의 혜택을 봤을 뿐이다.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대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싶지만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신나는조합

이사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1~2년 안에 200~300여개 지점을 만든다는 큰 목표를 잡았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은 것 등을 보면 주로 홍보에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미소금융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CSR)’으로 접근했지만 대출 수혜자의 문턱만 높일 뿐 서로 눈치를 보며 생색을 내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실익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i@

일본 간 나오토 時代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사진)이 제94대 총리에 지명돼 민주당이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룬지 9개월 만에 새 내각이 출범한다.

정권의 2인자인 간사장에는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상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거명되고 있다.

관방장관에는 반(反)오자와 세력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행정쇄신담당상과 아라이 사토시(荒井聡) 총리 보좌관을 기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무상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부 대신을 승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조남호 기자 spdran@

소강상태 돌입...추격매수 자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소강상태 내지는 소폭의 조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천안함 관련 대북 리스크 완화로 외국인투자자의 순매수로 반등에 지속하고, 스페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증시 낙폭이 크다는 평가속에 주간 기준 2.55%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다소 피상적인 상

승 배경으로, 지난 5월말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과 이로 인한 증시 패닉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점이 지난 주 주식시장 반등의 실질적인 요인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향후 시장의 반등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말의 증시 급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면 최근의 반등 속도나

1700선 회복 시도 역시 조금은 과도할 수 있다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이나 재정 리스크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사실과 국내의 경기 모멘텀도 둔화될 수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소강 내지는 소폭의 조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집권여당 선거참패 MB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6.2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정부가 출구전략, 부실기업 퇴출, 공공요금 인상 등 산적해 있는 경제정책 구사에 어떤 변화를 보일까. 〈관련기사 3면〉

일단 정부와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정책추진에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정부가 독주를 견제하는 민심을 확인한 이상 야당의 반대가 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도 “지방권력이 교체됐다고 해서 중앙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기세여서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우선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이 뚜렷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정부가 금리를 올릴 여지는 높아졌다. 정부는 남유럽 재정 위기

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조만간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침체 과정에서 미뤄졌던 기업구조조정에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부실기업에는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예고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도 난항을 거듭할 개연성이 높다.

이한선 기자 griffin@

나이보다 건강하게
안티에이징

[anti-aging]
**안티에이징,
피부와 몸을 따로
생각할 수 있나요?**

이제 온몸이 건강해지는 안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항산화제란?
활성산소는 각종 생활습관병과 노화를 유발하는 유해산소로서 **과로, 스트레스, 과음, 흡연,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인데 **비타민C·E, 아연, 셀레늄**이 대표적입니다.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항산화 비타민·미네랄이 보강된 국민영양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활성비타민B군에 비타민C·E, 아연, 셀레늄 등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비타민과 항산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에 생기를 줍니다.

비타민C 1200mg 함유!
(하루 2정 기준)

아로나민 씨 플러스

비타민C·E, 아연, 셀레늄 등 항산화제 보강 -
아로나민 씨 플러스

제품문의: 080-022-1010 (주)일동제약 | www.aronamin.com

광고심의필: 1045-0801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하십시오. 102-330-1658 / www.kfda.go.kr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손실 ‘눈덩이’

60여개 임가공업체 발주 끊겨 인건비도 부담...대책 없으면 존폐 위기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과 북한의 군사적 보장 철회 등으로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입주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특히 의료 섬유 부문 임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121개사. 이중 주문생산 등을 주로 하는 임가공업체들은 약 절반 가량이다. 이들 주문생산업체들은 원자재를 받아 바이어의 주문대로 생산한 뒤 납품하는 방식인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자재 반입과 바이어의 발주가 동시에 끊겼다는 것이다.

가을 상품을 주문받아 생산에 들어갈 시기인데 발주가 끊기면서 매출은 커녕 공장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지난 3일 임시총회에서 “계절상품을 취급하는 임가공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발주가 없으면 6개월 후에 도산하는 기업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입주기업 사장도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월 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는 입주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벽지수당과 위험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여기에 남북 관계에 따른 현지 출퇴근이 늘면서 유류비 지원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사실 전체 리스크를 따져 보면 인건비는 큰 부담은 아니다”면서도 “기회는 많았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주 기업이 자진 철수할 경우 경험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 또 북측이 지난 5월 개성공단 설비 반출 불허를 발표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경우 빈손으로 나와야 할 처지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위해 70~15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오오엔텍 육탄갑 강창범 사장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크는 남북 양측에 의해 법률로 보장돼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121개 입주기업 중 75개 업체가 서명하는 등 정부에 이 같은 절박한 처지를 알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심홍수 기자 shs@

미국 3개 도시 파산 위기 직면

디트로이트·제퍼슨카운티·해리스버그 등 재정 파탄 상태



재정 악화로 미국 주요 도시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디트로이트 전경.

남유럽이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주요 도시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

미국 지방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830억달러의 자금부족을 겪을 것이며 주요 3개 도시가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춘이 최신호를 통해 보도했다.

지방정부가 실제 파산할 경우에 따른 여파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미도시연맹(NLC)에 따르면 미국 지방채의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PRIM의 제프리 클리블랜드 애널리스트는 “지방채는 도로나 공공건물 등 공공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다”면서 “지방채의 80%를 일반 가계 또는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투자등급 지방채의 5년 누적다폴트비율은 0.5% 미만이다. 이는 회사채와 비교하면

그, 디트로이트 등 세 도시가 파산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퍼슨카운티는 66만5000명의 인구를 보유한 앨라배마주 최대 인구도시로 부채만 50억달러에 달한다.

제퍼슨카운티는 지난 1990년대 중반 하수시스템 정비를 위해 지방채를 대거 발행했으며 2003년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패가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포춘은 전했다.

제퍼슨카운티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채권으로 전환했으며 금리스wap에도 투자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리스버그는 올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6800만달러에 달하며 이미 일부는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기로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디트로이트는 올해 예산에서 2억8000만달러가 부족하다.

지난 3월 2억5000만달러규모의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재정상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주요 도시의 재정이 나아지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포춘은 파산을 선언하는 도시가 늘어나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의 심각성은 도시 또는 카운티 다폴트와 관련된 적절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중국 低임금은 옛말

인상열풍...최저 임금도 상승



KFC를 보유한 움브랜드

저렴한 인건비로 상징되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만 파스콘사 선전공장의 연쇄자살, 혼다차 파업으로 촉발된 임금인상 움직임이 외식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법정최저임금도 인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KFC와 피자헛으로 유명한 움브랜드가 중국 선양시에서 임금인상 관련 노사협상을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차이 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움 브랜드와 선양시 노동조합 주시우리 대표는 임금인상 협상을 시작했다.

주 대표는 회사에 “월 최저 임금을 900위안(약 16만원)으로 올리고 연봉을 5%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회사는 월 최저임금을 선양시 평균수준인 700위안으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임금인상 이견차로 지난 수개월 간 끌어왔던 단체근로계약서의 초안 최종본을 2주안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

움브랜드는 중국 북부의 거점도시인 선양시에서 57개 KFC매장과 11개의 피자헛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수는 2000명에 달한다.

KFC가 지난 1987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중국은 KFC의 세계 2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한편 베이징시는 다음달 1일부터 법정최저임금을 월 960위안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복지국은 이날 법정최저임금을 현재의 월 800위안에서 20%인상한 960위안으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여름 휴가 지갑 빈털털이

경기침체 여파...여행경비 대폭 줄일듯

높은 실업률과 미국증시의 부진 등 아직 경기회복이 덜 된 여파로 미국인들이 올 여름 휴가비용을 바짝 줄일때 예상된다.

미 여행사들은 올해 미국인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휴가를 떠날 예정이지만 사람들이 경제상황에 불안을 느끼면서 여행비용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올해 항공료가 1년전에 비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정의 휴가비용은 평균 809달러에 불과해 지난해의 876달러에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여행사들은 사람들이 여행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운송수단과 여행상품을 찾거나 집과 가까운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스티브

파리아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여행경비는 훨씬 뒤에야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 회사도 10%에 가까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높은 실업률로 올 여름 성수기가 예년보다 부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호텔 및 리조트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장기투숙시 요율을 인하하거나 스과 또는 음식집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여행업 리서치 업체인 STR은 올해 평균 숙박비가 95달러로 2년 전의 107달러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미 텍사스주에서 플로리다주까지의 지역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주의 리조트들은 무료 숙박이나 골프비를 안 받는 마케팅 전략을 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부자되려면 베이징대 가라

중국의 베이징대학교가 억만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뽑혔다.

중국 대학졸업생협회가 ‘2010년 중국 억만장자 조사 보고서’에 기초해 억만장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을 선정한 결과 베이징대가 억만장자 최다 배출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차이 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등장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베이징대가 총 63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했으며 이들의 자산은 총 1390억위안(약 24조57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대과 더불어 중국 2대 명문대학인 칭화대학은 54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뉴스

이투데이

www.efoday.co.kr

대표이사·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서성환 편집국장 김중현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태양빌딩 9F
대표전화 : (02)784-1002 팩스 : (02)784-1003

중권부 (02)799-2615 신일부 (02)799-2620 금융부 (02)799-2625
건설부동산부 (02)799-2630 국제부 (02)799-2635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경제부 (02)799-2645 엔터테인먼트부 (02)799-2650 사단부 (02)799-2655

2006. 4. 27 등록번호 서울 다 073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1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99
구독료 : 1부 1500원, 한달 6000원

비거리에 관한 모든것

ATOMIST GOLF

KAIST / Gamma-Ray Golf Ball

KAIST

국립과학연구소

USGA

R&A

감마로 닷컴

gammaro.com

왜! 아토미스트 골프볼이 주목 받는가?

이유는? 카이스트 기술로 탄생한 골프과학, 감마선(gamma-ray)조사 골프공 이기 때문

비거리 20% 증가! 방향성 개선! 부드러운 타구감!

BEFORE

AFTER

골프볼의 분자 구조가 감마선 조사후 균일하게 형성되어 탄성 증가 및 방향성이 개선됩니다.

CORE
Epoxy Resin / Filled

COVER
Urethane / IPC

INNER LAYER
DuPont / IPR

- 아토미스트 감마볼은 특허로 등록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골프볼입니다.
- 또한 USGA, R&A기관에서 공인 인증된 최고의 골프볼입니다.
- 또한니의 감마볼 **로스트 감마볼**(타이틀리스트, 캘러웨이, 던롭, 테일러메이드, 나이키 등)

ATOVISIO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5-20 아토비전 1층 | 031-723-5874 | www.atovision.com

日 간 나오토 과제는 환율·재정

일본의 차기 총리에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겸 재무상이 선출된 가운데 신임 총리에게는 환율 방어와 재정 안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엔화 강세와 거액의 재정적자는 회복 기조에 오르고 있는 일본의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짧고도 험난했던 8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엔화 강세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거액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을 약속하면서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한층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간 신임 총리가 정권을 잡게 될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가 엔화 약세와 재정안정을 위한 소비세를 인상 지지자라는 점이다.

간 신임 총리의 소신대로 엔화 약세 기조를 정착시킬 경우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주식시장 분위기도 고무시키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그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대신 소비세를 인상 등의 세제개혁으로 재정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오카가와 사토시 수석 외환 트레이더는 "엔화 약세 지지자인 간 신임 총리가 총리가 되면 엔화 가치가 하

엔화 약세와 소비세 인상 추진할 듯



간 나오토 일본 신임 총리는 환율 방어와 재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년부터 일관적으로 이어진 일본 정부의 방침과 마찬가지로 간 신임 총리도 시장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구두 개입과 경고는 더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 신임 총리는 달러엔 환율을 달러당 90엔대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하방압력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의 재

정위기 촉발과 함께 맥없이 추락하고 있는 유로화 때문이다.

유로는 유럽발 재정위기에다 지난달 31일 유로존 핵심인사였던 독일의 호스트 뮐러 대통령의 중도사퇴로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유로화는 추가 매도 압력이 고조,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 수출업체들의 실적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과 함께 재정지출 삭감과 증세도 새 정부에는 민감한 이슈다.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포식잡이에 실패해 지지율 하

락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소비세율을 섣불리 올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간 신임 총리는 하토야마와 노선을 달리해 지난 2월 열린 G7(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비세율 인상 논의 개시를 지시하고 3월에 정부 세제조사회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전체의 재검토에 착수했다.

1월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재정적자와 디플레 압력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데 자극을 받은 것이다.

바클레이스 캐피털 증권사의 모리타 교헤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간은 일본의 재정책략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의 방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일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는 국제 가격이 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정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폴드만삭스의 이치유키 일본 전문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소비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책략이 굵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민태성의 글로벌포커스

일본의 리더와 리더십

리더가 있어야 리더십이 있을 텐데. 진정한 리더가 없다. 일본 애기다.

정치와 행정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취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사임했다. 취임 9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지난해 9월 하토야마 내각은 화려하게 출범했다. 54년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한데다 지지율은 80%에 육박했다.

문제는 리더십이었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 덕에 국민들은 일본경제의 부진을 정권에 묻지 않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하토야마 8개월 천하의 배경이다.

하토야마의 직접적인 사임 이유는 미숙한 외교였다. 오키나와현 후텐마 소재 미 해병대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에게 안간 실망이 너무 컸다.

임기 내내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로 오락가락한 끝에 미

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토야마 스스로도 말을 바꾸면서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를 불려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자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하토야마는 사면초가에 빠졌고 결국 사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됐다.

하토야마의 사임은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일본은 제2차대전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2위일지 모르지만 일본의 경제대국 지위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시아의 패러다임은 일본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한지 오래다.

일본은 스스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역시 2차대전 패전국이었던 유럽 최대 경제구역으로

도약한 독일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독일이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반일 감정은 여전히 뿌리깊다. 역사 왜곡 문제와 독도 소유권 주장 등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본의 망언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7일 출범하는 민주당의 집권 2기는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권에게 실릴 힘의 무게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안정적 집권기 반을 구축할 수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중의원마저 조기 총선이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

리더십의 부재로 허락이는 일본이 차기 정권에서 진정한 리더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부담>lsmin@

“사태 알았다면 신평사 정리했을 것”

버핏 청문회 출석…지방채 위험 인식해야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사태를 미리 알았다면 신용평가사의 지분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버핏은 2일(현지시간) 금융위기 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위기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모기지 산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등급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버핏은 그러나 신평사 역시 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많은 기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 역시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내다보지 못했으면서 “최근 미국의 부동산가격은 사상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버핏은 “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무디스 등 신평사 지분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버핏은 또 미국 경제의 복병은 지방채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방채와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며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 3월 기준 포트폴리오에 39억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말의 47억달러에 비해 8억달러 감소한 것이다.

버크셔는 200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방채와 관련해 최대 160억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버핏은 그동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경고성 발언을 해온바 있다. 그는 지난해 주주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방채의 디폴트를 막는 보증이 위험한 사업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지방정부는 2조8000억달러 규모의 지방채시장에 재정적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분야별로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공공사업 비중이 높다. 지방정부의 지방채 의존도 상승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2일(현지시간) 지방채 시장이 미국 경제의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 금융위기 사태와 경기침체로 세수 확장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채권 발행이 더욱 효과적인 재정 확보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채 상황에 실패하면서 실제 디폴트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는 30억달러 이상의 채권 상황에 실패한 상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남아공월드컵 아프리카대륙에 ‘단비’ 될까

브릭스 잇는 최대 투자처로 각광…과제도 산적

2010 남아공 월드컵’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개최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백인정권 하에서 인종차별과 경기 침체로 얼룩진 서브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대륙이 ‘축구공’ 하나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설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다 정부와 세계은행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혁에 실패해 해외 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아프리카 대륙이 2010 남아공 월드컵’을 기폭제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잇

는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머니와 유리한 교역 조건의 부활로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FT는 아프리카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4.7%를 기록한 뒤 2011년에는 6%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프리카의 개선된 거시 경제와 최근의 채무 탕감의 영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월드컵 개최지 결정 이후 기뻐하고 있다.

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계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10%, 남아공에는 전 세계 금의 40%가 매장돼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잡스 “포스트 PC 주역은 아이패드”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포스트 PC 시대의 주역이 아이패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잡스 CEO는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D: 디지털의 모든 것(All Things Digital)’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2000년초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서 “스크롤링 메커니즘으로 전화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시스템에 의한 작동 이상의 기능을 가졌고 이는 애플이 MS를 뛰어넘는 배경이 됐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잡스는 지난주 시가총액 기준으로 MS를 제치고 최대 IT기업으로 도약한 것에 대해 “환상적”이라

고 표현했다.

구글과 협력 관계를 단절했던 것에 대해 잡스는 “그들은 우리와 경쟁하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개인용컴퓨터(PC) 이후 시대와 아이패드의 미래에 대해 잡스는 아이패드가 PC의 유용성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포스트 PC 시대와 관련 아이패드가 차세대 주자가 될 것인지 또 시기는 내년 또는 5년, 7년 뒤인지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자녀사랑CMA통장 동양증권

My Jr. CMA

서혜민

자녀사랑적립식통장 동양증권

My Jr. FUND

한선우

빨강,노랑으로 시작하세요! 한 살부터의 자산관리

동양종합금융증권-자녀사랑CMA·자녀사랑적립식펀드

* 자녀사랑은 고객자산센터(1588-2600)문의 및 홈페이지(www.MyAsset.com)참조 * CMA-RP, CMA-MMF는 애널리스트에 의해 보호되어 있습니다 * 적립투자증권은 애널리스트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에게 권해 투자자는 현재 시장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사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CMA 및 적립투자증권에 관하여 증권업, 신용업, 보험업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신용업 증권업 및 보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CMA우대수익,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을 자녀의 용돈으로, 학자금 마련계획까지 든든하게-

* 자녀사랑CMA 고객사는 이벤트 (2010.4.1~6.30)

자녀사랑 CMA를 가입하시고, 자녀사랑 적립식펀드를 월 3만원 이상 매수하신 고객께 어린이 도서 '하토야마' 증정 (지정 내광고객 선착순 1만명)

서민 웃음 주겠다고 했지만...대출창구 사실상 ‘휴업’

6개 재단 올 대출목표 785억중 집행 3.87% 불과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의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 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6개 대기업은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1 곳에 미소금융 지점을 열었다.

설립 초기 기업들의 의지와 달리 미소금융의 실제 대출실적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 완화, 지방 소외 등의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 사항으로 지적됐다.

본지 취재 결과, 출범후 5월31일 현재까지 대기업이 출자한 미소금융재단의 총 대출금액은 30억3550만원으로 연간 대출목표 785억원의 3.87%에 불과했다. 대출 수혜자는 349명을 집계됐다.

이에 대해 롯데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대출 재원을 최대한 사용해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현재의 미소금융 대출구조가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소의 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자활자금 지원’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대기업 미소금융 대출 현황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대출목표(연간)	200억원	170억원	140억원	140억원	90억원	45억원
대출상당자	월 20명	유선 40명, 발하지 없음	발하지 없음	발하지 없음	발하지 없음	월 15명
대출수혜자	96명	59명	59명	61명	50명	24명
대출수혜자 유형	도소매	발하지 없음	외식업음식점	자영업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유형
대출금액	9억원	3억2000만원	4억7050만원	6억5000만원	5억원	1억9500만원
지점 수	수도권 2개	2개	2개	2개	1개	1개
비 수도권	4개 (6월에 경남지역 1개 추가)	2개	2개 (6월에 1개 추가)	1개	2개 없음	
지원	연간 300억원, 10년간 3000억원	연간 200억원, 10년간 2000억원	연간 200억원, 10년간 2000억원	연간 200억원, 10년간 2000억원	연간 100억원, 10년간 1000억원	연간 50억원, 10년간 500억원
집행률	4.5%	1.88%	3.36%	6.4%	5.56%	4.33%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놔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엔 미소금융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관계자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기준 마이크로크레디트와 달리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원금 회수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운용 탓에 재원을 마련해 놓고도 대출을 못해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간 미소금융 관계자는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에서 기부금을 운용하게 돼 있기 때문

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생색을 내는데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미소금융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면 향후 10년간 2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10년 후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면서 “금융소의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인 만큼 정부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미소금융 사업을 진행했다가 흐지부지 끝낼 게 아니라면 미소금융 사업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K, 연140억 대출목표 3.4% 실행

SK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후 총 59명에게 4억7050만원을 대출했다. 1인당 평균 8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SK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출연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대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은 인원이 부족한 만큼 대출규모도 연간 대출 목표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SK미소금융재단이 출연한 금액은 연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이다. 이중 운영자금 등을 제외한 연간 대출 목표는 140억원이다. 그러나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대출 규모는 4억7050만원으로 집행률이 3.36%에 그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대출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활의지를 높이고 있다.

우선 SK미소금융재단은 사회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고객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이동상담을 통한 찾아가는 서민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의 고객홍보 마당을 통한 대출자 영업장 홍보, 홈페이지의 미소금융재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대출고객 영업장을 일일 이 순회 방문해 격려를 하는 한편 어려운 점에 대해 직접 상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5개월간 61건 6억5천만원 대출

LG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이후 한달만인 올 1월 19일 첫 대출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대출 건수는 61건이다. 재단측은 일 평균 방문자와 상담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타 그룹의 경우를 봤을 때 5% 미만의 대출 집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액도 현재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재단이 올해 200억원을 출연, 이중 6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억원을 대출 목표액으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남은 7개월 동안 매달 20억원 가까이 대출이 이뤄져야 목표를 채울 수 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6억5000만원이라는 실적을 봤을 때 당초 대출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LG그룹 관계자는 “실제 대출이 얼마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알려질 경우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 더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롯데, 1836건 대출상담 1.3% 집행

롯데미소금융재단이 출범 6개월을 맞았지만 대출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 말까지 대출건수는 총 24건으로 1주일에 1건 정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실적이다. 롯데미소금융은 올해50억원의 재원중 45억원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대출실적은 24건에 대출액은 1억95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00만원에 불과하다.

전화 상담 1619건, 방문상담 217건 등 총 1836건인 것을 고려하면 수혜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원 건수를 용도별로 보면 창업 임차자금이 2건, 운영자금 대출이 9건, 시설 개선자금이 4건, 무등록사업자 대출이 9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대출재원을 최대한 사용해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드리고 싶으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대출 실적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5월부터는 자격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수혜자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50여명에 6개월간 5억원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12월 출범과 함께 서울 화곡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포스코의 생산거점인 자리잡고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대부분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에 나서 재단설립의 근본 취지를 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출범이후 대출성적은 그리 좋은 점수가 아니다. 5월말 현재 포스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대출수혜를 받은 이들은 모두 50여 명.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해준 대출금액은 약 5억 원이다.

대부분이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명목의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신청자 1명당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미소금융에 뜻을 같이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출자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대출 수혜자의 비율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 포스코 측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부)



삼성, 200억 목표액중 9억 집행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재단 출범 후 대출 수혜자는 96명, 대출금액은 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6일 문을 연 이후 삼성미소금융 재단을 방문한 하루 평균 방문객은 40명이다. 이중 실제 상담을 받은 고객은 20명이고 1차 상담을 통과한 고객은 10명이다.

출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115일 동안 1150명이 1차 상담을 통과 했지만 그중 약 8%에 불과한 96명만 실제 대출 혜택을 받은 것이다.

실제 상담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4%, 방문객을 기준으로 하면 2%만이 대출 혜택을 받은 셈이다. 그만큼 대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받은 인원이 부족한 만큼 대출액도 올 대출 목표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출연한 금액은 300억원. 이중 100억원은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원이 올해 대출 목표 금액이다.

재단 관계자는 “사실상 대출요건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라며 “올해 목표했던 대출금액을 다 채우기는 것은 현재 난감이지만 시장 상인 특화상품도 개발 중이고 서포터즈를 조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미소금융재단은 삼성미소금융 1호 점이 개설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소금융 서포터즈’를 조직하기로 하고 삼성 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 수원지역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현대차, 59건 집행, 건당 540만원 불과

지난해 12월 출범한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지난 5월 말까지 총 59건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에 10건 정도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6개월간 전화로 상담한 건수가 4300건(일평균 40건), 실제 방문자수 1500여건(일평균 14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건수가 실제 이뤄진 것이다. 총 대출금액 3억2000만원, 결국 1건당 평

균 54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금액 면에서도 당초 연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을 출연해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처럼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실적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미소금융 요건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 재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 관계자 역시 “고객들이 금융위 등 정부에서 제시한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수혜대상자가 적은 것이 불만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달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종전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 지원 요건과 대출 절차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동부건설

한강의 랜드마크 이촌센트레빌

대한민국 아파트 최초
키트월을 적용한 설계로
한강의 푸른 경관을
사원하게 그려내다

종로의 랜드마크 종로센트레빌

자연 그대로를 담아낸
친환경 디자인으로
도심 속 맑은 쉼터를
완벽히 재현해 내다

강남의 랜드마크 대치센트레빌

사람을 아늑하게 하는
특별한 설계철학을 통해
강남 고급아파트 중에서도
최고의 프리미엄을 기록하다

송파의 랜드마크 가락센트레빌

센트레빌 1호 아파트이자
아간 경관조명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화려한 밤풍경을 연출하다

센트레빌, 랜드마크 10년

센트레빌은 어디에 있어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주거문화와 철학으로
이 땅의 주거트렌드를 대표해온 센트레빌!
같은 곳에 살더라도 자부심이 남다르다면
당신은 이미 센트레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늑하게 하는 집





'6·2 지방 동시선거'가 끝나자 금융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KB금융 회장 선출, 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건설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옥석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6월 중순 발표될 우리금융 민영화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을 분산매각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그동안 이슈가 된 지주사와의 합병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오는 6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지주 회장은 어운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화연 전 대구은행장 등이 부상하고 있다. 8월에 임기가 끝나는 보험개발원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인사도 관심거리다. 김현희 기자 maru13@

하반기 금융권 주요 이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6월 중순 민영화 방안 발표
예보 보유 지분 분산매각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6월15일 결정, 17일 인사이사회 상정
어운대, 이철휘, 윤용로, 이화연 부각

KB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7월 중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기업구조조정

6월까지 대기업·중소 신용평가
중·소건설사 옥석구분 구조조정

금융권 인사

KB 지주·계열사 줄인사
손보협회장·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공모

우리금융 민영화

先민영화 後합병...예보 지분 분산매각 가닥

공자위 민영화 법인 6월 중순 발표...경남·광주銀은 조기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은 6월 중순에 발표될 전망이다. 올 초 예상했던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분산 매각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중순에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지분을 매각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함께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자위는 우선 지분매각을 통해 우리금융을 민영화시킨

후 금융지주사와의 합병은 향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다른 지주회사와 M&A를 통해 실익을 얻을 수도 없고 민영화 초기 추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지분매각 방안을 제외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금융지주사간의 합병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지주사간의 합병은 시장에서 자질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선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이룬 후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합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와 연금 또는 전략적 투자자(SI) 등에게 분산매각하

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연금금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나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받아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4~5곳의 재무적 투자자에게 10% 미만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점적 대주주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 5% 미만의 지분을 조개 파는 분산매각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이전에 서둘러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주사 내 몸집을 줄일 수 있고 내년 시행될 국제 회계기준 IFRS에 맞춰 우리투자증권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 회장 선출과 금감원 제재



어운대

이철휘

이화연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5일 회추위를 통해 결정되며 현재 어운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화연 전 대구은행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일 33명의 후보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11명으로 압축한데 이어 지난 4일 4명 안팎의 면접대상자를 선정했다. 회추위 관계자는 "11명의 후보군 중 평가 점수가 상위권인 어운대 위원장, 이철휘 사장, 이화연 전 대구은행장 등에게 면접의사를 타진한 결과 면접에 참여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오는 15일 차기 회장을 최종 결정해 17일 임시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임시주총에서 최종 선임된다.

어운대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될 당시 KB금융지주에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어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지만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조직 재

정비와 메가뱅크에 대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철휘 사장은 지난해 회장 선출과정에서 참여할 정도로 꾸준히 KB금융지주 회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화연 전 행장은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에서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가 소원한 KB금융지주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B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회장 선임 이후인 7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 여부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검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이번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부실 건설사 워크아웃 칼바람

새 신용위험평가기준 마련 中 中小 옥석가리기도

기업 구조조정 실시

6월부터는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실시된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 말까지 대기업그룹별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약정(MOU)을 체결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옥석가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대기업들은 현대그룹과 성동조선, SPP조선, 동부, 한진, 애경, 금호, 유진, 대한전선 등 총 9개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들은 약정 체결 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과 부실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단은 또 6월말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친다. 6월까지 세부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A(정상), B(일시적 유동성 부족), C(워크아웃), D(법정관리)로 구분한다.

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평가도 함께 이뤄진다. 이달 초까지 대형 건설사의 부실등급을 결정할 후 6월말까지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으로 자금난에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지난 5월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채권은행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TFT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 협약에 포함될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A, B, C, D등급을 정해 구조조정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부실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인사 태풍

KB 지주·계열사 줄인사

손보협회장·서울보증보험 사장도 관심

선거철이 끝나고 금융권 인사철이 시작된다.

우선 금감원은 6월 양성용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 본부장과 문재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양성용 본부장의 향후 거처로는 몇몇 은행과 증권사의 감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문재우 감사는 서울보증보험 사장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공개모집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내부적으로 총무국 김장호 국장과 저축은행서비스 김준현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금감원 감사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양성용 본부장의 후임

도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양 본부장의 후임에 맞춰 국장급 인사도 대거 실시될 전망이다.

KB회장이 새로 내정되면 지주사와 계열사에서 대거 임원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KB생명과 KB자산운용, KB 선물 등은 6월 정기주총에서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농협은 신용부문의 김태영 대표 임기가 6월말로 끝난다. 선거직후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용대표 선임 작업이 시작된다. 농협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를 선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물망에 오르는 후보가 없는데 가운데 그동안 농협 신용대표

가 내부 승진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크다.

보험권은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났다. 공개모집에 사내에서 정연길 감사와 김옥기 영업지원 담당 전무가, 사외에서는 김경호 전 이사와 이재욱 전 삼성화재 전무, 이수룡 전 서울보증보험 부사장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재우 금감원 감사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에는 정재용 보험개발원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등의 임기가 끝나 본격적으로 후임 선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www.iprovest.com

현명한 펀드 관리의 시작

교보증권으로 옮기세요!

펀드도 꼼꼼하게 관리 받아! 펀드클리닉 센터

펀드와 보험 혜택을 동시에!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

펀드 유형별로 찾아 볼까? 다양한 펀드 판매

펀드투자도 입맛대로!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

펀드 판매사 이동제한?

보유하고 있던 펀드를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교보증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고객센터
1544-0900으로 문의해주세요.

*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1062호(2010.3.4~2011.3.3)

건설株 바닥 찍고 반등하나

악재 해소 기대...현대건설등 대형사 해외 수주 호조 전망

올해 들어 극히 부진했던 주요 건설株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상반기 주요 악재로 작용했던 해외 수주 모멘텀 둔화 우려와 건설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대다수 건설주들이 연초 대비 크게 떨어졌으나 이들 악재의 해소 기미가 비추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일 외국인 투자자가 사흘만에 순매도 우위로 돌아지면서 닷새만에 숏고르기에 들어가 전일 대비 0.66%(10.85p) 떨어진 1630.40으로 마쳤다.

반면 건설업종 지수는 2.72%(4.48p) 오른 168.89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으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1일 현재 168.89로 연초대비 25.49% 하락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3.12%), 전기전자(0.48%), 운수장비(15.38%), 통신(3.57%), 금융업(-9.55%) 등 주요 업종 대비 낙폭이 가장 컸다.

건설주의 하락은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유럽 업체들의 가격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내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대 불안 요소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상황이 반전하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종 시가총액 1위인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외

국계 매수세가 연속 유입되고 있다.

연초 외인 비중은 21.81%였으나 연저점을 찍은 5월 19일 18.59%까지 감소한 이후 1일 현재 19.54%로 1%p 가량 증가했다.

시총 2위인 GS건설 역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4거래일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우건설(3일)과 대림산업(5일)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홍익 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이 적응하기도 전에 원·유로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당초 예상보다 약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환율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체제를 정비하면서 수주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기

	연초	1일 현재	등락율
코스피	1682.77	1630.40	-3.11%
건설	226.67	168.89	-25.49%
전기전자	7816.18	7778.59	-0.48%
운수장비	1438.47	1659.67	15.38%
통신	293.67	304.15	3.57%
금융	509.13	460.54	-9.54%

때문에 해외 수주 경쟁력이 상승해 건설주의 펀더멘탈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영도 LG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진행돼 업종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렇게 되면 2008년 말부터 주력 부실을 선반영하고 다각화된 국내·해외, 사업부문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투자 매력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박스권 증시 대응하는 세가지 전략은

방어주 저가매수전략 유효...소비자서비스, 음식료 및 담배 업종 주목

방어주 저가매수전략 유효...소비자서비스, 음식료 및 담배, 미디어, 소프트웨어 주목

KB투자증권은 4일 하반기 추세적인 상승전환보다는 박스권 등락과정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박스권 시장대응전략으로 ▲추세적인 매수보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지수보다

는 종목별 접근 ▲주도주 추가매수보다는 방어주 저가매수전략을 추천했다. 임동민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 우려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9년 4분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PER 9.0X, PBR 1.25X를 중심으로 박스권 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적정수준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했다.

임 연구원은 “아직 밸류에이션상을 위한 긍정적인 여건은 부족해 보여 현재 시장대응은 추세적 매수보다는 단기매매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전망”이라며 “지수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긍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또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상황에 급반전 예상도 이른 시점으로 KOSPI 1600pt 후반에 위치한 60일선도 기술적 저항을 가증시킬 것”이라며 “이 또한 박스권 시장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주식시장의 급락 이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낙폭 반회를 겨냥한 종목별 저가매수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희나 기자 hnah@

주간 IPO / 장외주식시장

6월 첫째주 코스피지수는 한주내내 상승하며 1664.13pt로 거래를 마쳤다. 한주간 장외시장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장외 KT계열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케이티씨에스는 3.25% 상승하여 4천원대 진입을 눈앞에 둔 3975원을 기록했고, 케이티스는 4850원으로 2.65% 상승했다. 반면, KT퍼워텔은 주 후반 2.33% 하락한 1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월드컵 3D 중계를 실시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2만 1300원)은 한 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6.50% 상승했다. 금호생명(+4.08%)과 미래에셋생명(-1.80%)은 각각 2550원, 1만900원으로 생보사주는 등락이 엇갈렸다. IT계열주에서 삼성SDS(9만 500원)는 주 초반 8만7000원대에서 3.72% 상승하며 9만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서울통신기술(4만5500원)은

0.11% 하락했고, 엘지씨엔에스(2만4000원)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범현대계열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현대아산과 현대카드는 주 후반 각각 2.38%, 1.59% 하락하여 1만250원, 1만55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 완성차 업체와 1500억 규모의 납품계약을 한 현대위아는 홀로 2.97% 상승한 5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초 연내 상장 계획을 발

표한 두산엔진은 1.67% 상승한 4만5750원을 기록했다. G20 회의를 전기자동차를 제공하는 씨티엔티는 한주간 22.54% 상승하여 4만3500원을 기록했다. 기업공개(IPO)종목에서는 오는 9월(수) 상장하는 솔라시아가 한주간 10.83% 상승한 8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에 공모를 마친 케이엔디티엔아이는 1만2600원으로 한주간 31.94% 상승 마감했다.

기간 : 2010.5.31~2010.6.4

장외시세표

A:100원, B:200원, C:500원, D:1,000원, E:2,500원

종목	종목명	2010.5.31			2010.6.4			주간등락폭	등락율	계약이체
		팔자	사자	기준가	팔자	사자	기준가			
장외주요종목	금호생명	2600	2300	2450	2600	2500	2550	100	4.08%	가능
	미래에셋생명	11200	11000	11100	11000	10800	10900	-200	-1.80%	가능
	삼성광주전자	30500	28000	29250	28000	27000	27500	-1750	-5.98%	가능
	삼성SDSC	87500	87000	87250	91000	90000	90500	3250	3.72%	가능
	서울통신기술C	46000	45100	45550	46000	45000	45500	-50	-0.11%	가능
	엘지씨엔에스C	24500	23500	24000	24500	23500	24000	0	0.00%	가능
	케이티스C	4750	4700	4725	4900	4800	4850	125	2.65%	가능
	케이티씨에스C	3900	3800	3850	4100	3850	3975	125	3.25%	가능
	코리아로터리서비스	13800	12500	13150	13600	13300	13450	300	2.28%	가능
	포스코건설	88000	83000	85500	90000	83000	86500	1000	1.17%	가능
	한국디지털위성방송E	20200	19800	20000	21500	21100	21300	1300	6.50%	가능
	한국증권금융	12300	11000	11650	14000	11500	12750	1100	9.44%	가능
	현대로지엠	7500	6500	7000	7500	6500	7000	0	0.00%	가능
	현대삼호중공업	57000	51000	54000	57000	51000	54000	0	0.00%	가능
	현대아산	11000	10000	10500	11000	9500	10250	-250	-2.38%	가능
IPO종목	현대위아	52000	49000	50500	54000	50000	52000	1500	2.97%	가능
	현대카드	16500	15000	15750	16000	15000	15500	-250	-1.59%	가능
	현대캐피탈	40000	35000	37500	40000	35000	37500	0	0.00%	가능
	KT퍼워텔	11500	10000	10750	11000	10000	10500	-250	-2.33%	가능
	SK건설	42000	41000	41500	42000	41000	41500	0	0.00%	가능
	삼보정밀전자C	8700	8000	8350	8700	7200	7950	-400	-4.79%	심사청구
	솔라시아C	8300	7400	7850	8900	8500	8700	850	10.83%	공모완료
	실리콘웍스C	73900	70500	72200	73500	71200	72350	150	0.21%	공모완료
	에스디시스템C	12000	11000	11500	12000	11000	11500	0	0.00%	승인
	우양에이치씨C	12500	9000	10750	12500	9000	10750	0	0.00%	심사청구
	웅진에너지C	13500	12200	12850	13000	12500	12750	-100	-0.78%	공모예정
	원익머트리얼즈C	15000	13000	14000	15000	13000	14000	0	0.00%	심사청구
	유비벨록스C	16500	15000	15750	16500	15000	15750	0	0.00%	공모예정
	이글루사이클리티C	11500	10500	11000	13800	11200	12500	1500	13.64%	승인
	이연제약C	16600	16150	16375	16700	16200	16450	75	0.46%	공모완료
IPO종목	케이엔디티엔아이C	10100	9000	9550	13000	12200	12600	3050	31.94%	공모완료
	크루셀텍C	31000	29000	30000	29000	28000	28500	-1500	-5.00%	승인
	현대홈쇼핑	58000	53100	55550	61000	60000	60500	4950	8.91%	심사청구
IPO종목	힐라코리아	37700	34500	36100	36500	34500	35500	-600	-1.66%	심사청구

증권사 실적 좋으니 신용등급도 ‘쑥쑥’

신용평가사, 증권사 신용등급 및 전망 줄줄이 상향조정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국내 증권사들의 신용등급과 신용등급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이익 창출능력과 자본적정성이 우수해 앞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31일 푸르덴셜증권을 인수한 한화증권에 대해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와 한신정평가는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

상향조정 이유는 한화증권이 푸르덴셜증권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28일에는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와 한신정평가는 신영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한단계 상향했다.

신용평가사 측은 “신영증권의

오래 업력과 총성도 높은 고객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실현, 파생결합증권, 펀드판매 등으로의 수입원 다변화, 우수한 재무건전성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증권은 6월 1일 동양증권증권의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올렸다. 지난해 사총재대의 이익을 기록한데다 투자는행(IB)영업을 강화하면서 수익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증권사들은 기업 신용등급 외에도 신용등급 ‘전망’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한기평은 지난달 4일 삼성증권

증권사별 신용등급 및 전망 현황		
증권사명	기존 신용등급 및 신용등급 전망	변경된 등급 및 전망
동양증권증권	A	A+
한화증권	A	A+
신영증권	A+	AA-
대우증권	안정적	긍정적
삼성증권	안정적	긍정적
우리투자증권	안정적	긍정적

의 기업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한신평도 이날 대우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꿨다.

같은달 14일 한신평은 우리투자자의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했다. 신규 업무 진출로 사업다각화가 이뤄진 데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재현 기자 nls0118@

6월 코스피지수 역사적으로 부진했다

대신증권 지난 10년간 증시분석 3·6·10월 주가 약세

최근 10년간 6월의 국내 주식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신증권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월별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간 6월에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모두 네 차례이며 3월, 10월달과 함께 성적이 가장 나쁜달로 조사됐다.

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달은 5월과 12월로 각각 7회씩 나타났다. 3월과 6월의 성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신증권은 “통상 전 분기의 실적 발표가

있기 전인 분기 초·중반까지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다가 발표가 끝난 분기 말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실망 매물이 나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인 9월도 10년간 오른 횟수가 5회로 전체 평균(5.4번)을 밑돌았다.

12월은 분기 말이지만 배당을 노린 매수세 때문에 주가가 주로 7회씩 나빠졌다. 3월과 6월의 성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신증권은 “통상 전 분기의 실적 발표가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악재의 영향을 유달리 많이 받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

6월 코스피지수는 5월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6월에도 반드시 떨어지는 연관성을 보였다.

이것만 본다면 올 5월에 코스피 지수는 5.8%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6월도 주식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제 만기가 집중했다는 이유 등으로 7~9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어 6월 코스피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한화증권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를 확정지은 한화증권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1일 영업 총괄, Capital Market 총괄, 리서치본부, 투자전략센터, 리빙센터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영업 총괄을 신설해 고객 브로커리지 영업 및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고객 상품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캐피탈 마켓 총괄을 신설했다. 또한 고객지원본부를 상품전략센터로 개편해 편제했으며 채권 상품과 장외파생상품 제공 강화를 위해 FICC사업부와 OTC파생팀, OTC영업팀을 편제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서프라이스 연금형 상품’ 2종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프라이스 연금형 상품’ 2종을 지난 3일부터 판매한다. ‘서프라이스 즉시 연금 상품’은 목돈을 투자하고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 받는 상품으로 운용자산 및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하나UBS 실버모토시스템 월분배식 주식혼합형 펀드와 KOSPI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대투증권 월이자지급식 원금보장형 ELS 두 종류로 판매된다.

■상장에정기업



태양전지용 잉곳(Ingot) 및 웨이퍼 생산 전문업체인 웅진에너지가 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NO.1 태양광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웅진에너지 유학도 대표는 “공모금액은 제 2공장의 건축 및 신기술비 증설을 위해 쓰게 될 것”이라며 “코스피 상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 공신력과 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태양광 업계 글로벌 No.1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태양전지용 고순도 단결정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는 지난 해 매출액 1189억, 영업이익 565억, 당기순이익 410억 원을 올렸으며, 이는 각각 전년대비 76%, 51%, 2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수익성 또한 영업이익률 47.5%, 당기 순이익률 34.5%로 높은 생산성과 원가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으로 도약

세계 3위 글로벌 태양전지 기업과 협업체제 구축

이 회사의 지난해 말 현재 세계 태양광 잉곳·웨이퍼 시장 점유율은 3.8%, 세계 단결정 잉곳·웨이퍼 시장 점유율 10.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글로벌 태양전지 기업인 美 선파워(SunPower)와 웅진의 합작회사로 설립된 웅진에너지는 회사가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급성장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에너지 사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태양광 발전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2012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웅진에너지의 생산품목인 잉곳과 웨이퍼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어 가격 경쟁력이 시장 자체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잉곳과 웨이퍼 시장도 2013년까지 연평균 60.7%에 달하는 높은 성

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이미 연 생산능력 1,827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과 각 국 거래처의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7000평 규모의 제 2공장 설립을 진행 하고 있다.

제 2공장은 연 생산능력 3500톤에 달하는 규모로 제 1공장과 합하면 연평균 5327톤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곳만 기준으로 하면 총 1GW의 생산량 달성이 가능한 규모이며 웨이퍼 사업 규모 또한 500MW로 확대된다. 해당 생산량은 지난 해 국내에서 생산된 390MW보다도 많은 양으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수요 증대에 대비한 것이다.

웅진에너지는 확충된 생산 설비를 기반으로 국내외 잉곳과 웨이퍼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며 선파워를 비롯한 다양한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영희 chaosbul@

호프집 매출만도 못한 상장사 투자주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 높아...향후 상장폐지 가능성도 염두

코스닥기업 연 매출 30억 미만시 ‘엘로카드’ 2회 연속 퇴출

종목명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비율
	2010년 1분기	증감율	2010년 1분기	증감율	2010년 1분기	증감율	
상영홀딩스	69	(89.30)	-448	적자지속	-559	적자지속	7.65
베스텍	627	(14.49)	-1,801	적자지속	-1,332	적자지속	88.77
청호전자통신	648	61.90	-513	적자지속	-508	적자지속	83.26
로엔케이	893	(15.33)	-661	적자지속	-578	적자전환	14.78
CS홀딩스	1,288		568		393		9.68
제넥신	12	-86.79	-535	적자확대	-353	적자축소	11.71
큐렉스	26	-71.90	-1,668	적자확대	-1,707	적자확대	22.81
제일창투	47	-68.70	-270	적자확대	-240	적자축소	금융
케이에스일	78	-95.67	-828	적자확대	-2,565	적자전환	31.71
넥스투투자	100	-75.83	-1,617	적자축소	-1,807	적자축소	금융

2010 10월 기준 코스닥 매출액 하위 5위

올 1분기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14개사는 월 1억5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대박 호프집이 월 1

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상장사의 매출이 호프집 매출 보다 못한 것에 대해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매출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유가증권시

장에서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한 상장사는 상영홀딩스. 상영홀딩스는 올 해 1분기 매출이 고작 6900만원에 그치지 않아 매출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밖에 베스텍은 6억2700만원으로 최저 매출액 2위를 기록했으며 청호전자통신, 로엔케이, CS홀딩스가 각각 6억4800만원, 8억9300만원, 12억8800만원으로 뒤따랐다.

코스닥시장에서 올 1분기 하위 매출 상장사로 제넥신(1200만원), 큐렉스(2600만원), 제일창투(4700만원), 케이에스일(7800만원), 넥스투투자(1억원) 등이 최저 매출액 1위~5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업들은 매출실적만 저조한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특히 매출이 1분기 1억원이 채 안되는 상영홀딩스, 제넥신, 큐렉

스, 제일창투, 케이에스일, 넥스투투자 등의 영업 적자는 각각 4억4800만원, 5억3500만원, 16억6800만원, 2억7000만원, 8억2800만원, 16억1700만원에 달했다.

매출 부진 상장사들의 업종은 유통업, 비금속광물, 서비스업, 금융, 기타서비스, 통신방지, 반도체 등 다양하다.

코스피는 한 해 50억원, 코스닥의 경우 연 30억원 매출액 미달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2년 연속으로 미달시 상장폐지된다. 여기에 코스닥은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자기가 본 50%이상(또는 10억원이상)이 최근 3년간 2회이상 될 때 관리종목 지정되며 다음해 다시 위 요건에 해당되면 퇴출된다.

영업 손실이 4사업년도 동안 발생할 때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5년연속시 상장 목록에서 제외된다. 1분기 매출이 매 분기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22개사가 관리종목 대상이 됐다.

또 해당 기업 중 4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을 기록했다. 유

가증권시장은 12월결산 634사 중 5월17일 이후 제출예정 법인, 2009년 감사의견한정법인, 상장폐지 절차 진행법인을 제외한 601사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코스닥시장은 12월결산 931사중 관리종목, 결산기 변경, 상장폐지실질 심사진행, 국회회계견적적용, 외국기업, 신규상장 총 98사를 제외한 833사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12월 결산 법인 중 관리종목은 나이스메탈, 네오세미테크, 뉴로테크, 대선조선, 록손에너지, 마이크로로봇, 메카포럼, 모라리온, 무한투자, 미 리넷, 바이나믹, 베리맨모어, 브이에스에스티, 사인시스텔, 선우종합공업, 소리바다미디어, 세라텍, 아이니츠, 등 45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기업이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에서 매출액이 부진할 때, 주된 영업점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계속사업이익이나 상장폐지를 위한 일시적 매출이냐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승환·고종민 기자 lsh@·kjm@

KB투자證 노치용 사장의 숙제 M&A 성공해야 상위권 도약



노치용 사장

두 어깨가

무겁다.

노 사장은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 현대전자(하이닉스)를 거쳐 1998년 현대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건설 근무 당시 대표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1978년부터 6년간 지내면서 MB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당초 김명환 전 사장의 연임에 무게를 뒀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서도 특별한 후보군이 화자되지 않았을 뿐더러 초대 사장이라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비교적 KB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사장은 2008년 3월

한누리증권을 KB그룹이 인수하면서 출범한 KB투자증권의 초대 사장을 맡아 비록 2009 회계연도에 적자를 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에 적자를 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으로

한편 KB투자증권이 이번 인사를 두고 “노 신임 사장이 증권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지니고 있어 2013년 국내 3위 종합금융투자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KB투자증권의 도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자평했으나, KB투자증권이 동종업계의 M&A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즉 시장의 파이는 한정된 가운데 경쟁 증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 부분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진입장벽은 철옹성과 같아 신생 증권사인 KB투자증권의 현금규모로는 이를 뛰어넘기에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상장철회 사유 ‘모르쇠’ 투자자 분통

덕신하우징·거래스 “말해줄수 없는 사항” 일관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 3개월 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를 한 후 갑자기 상장예심 철회를 했다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34세)는 지난 3월 8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덕신하우징이 3개월이 지나도 코스닥 상장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없어 회사측에 문의하자 상장 예심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측에서는 상장철회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김씨는 한국거래소에 문의를 했지만 거래소 측에서도 상장심사 철회가 됐을 뿐 철회이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투자자가 상장 철회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도 한국거래소는 모르쇠로 일관해 답답하다”며 “투자자들로서는 공금증에 대담을 얻을 수가 없어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어디에도 덕신하우징이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정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입장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

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매번 거래소가 내부 투명성을 개선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나 소식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코리아본뱅크, 제약업으로 업종 변경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코리아본뱅크는 주요업종을 기타서비스업에서 제약업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코리아본뱅크는 올 2월 코스닥업체인 동아이원그룹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면서 기존의 회원권 분양 및 증개업인 기타서비스업에서 기초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와 함께 코리아본뱅크의 소속부서도 기존 일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변경됐다. 코리아본뱅크의 심병목 대표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회사의 주요 업종 표시가 회사의 본 사업인 제약업으로 분류돼 회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종민 기자 kjm@

IBK투자證, 고객 위하는 조직문화 정착 마련



윤용로 IBK7업은행장은 축하사를 통해 “IBK투자증권 임직원들의 노고로 IBK그룹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개인 및 중소기업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의 리더 NCA(New Culture Agent) 63명을 임명했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저녁 장기우랑고객 550여 명을 초청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 스타리움에서 3D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관람하는 사은행사를 가졌다.

오하나 기자 hnch@

동부증권

신임 리서치센터장에
용대인씨 승진 임명



리서치센터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용대인 센터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차와 삼성그룹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신한금융투자, 한화증권 등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로 9년간 활동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동부증권에서 리서치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용대인 센터장은 동부증권 리서치 강화 전략에 따라 지난해 11월 동부증권으로 복귀해 리서치센터내 기업분석본부장을 맡아 인력 충원과 조직력 강화 작업을 해오다 이번에 리서치센터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재현 기자 nls0118



현대증권

현대증권은 스마트 폰 전용 주식매매 서비스를 스마트 폰 고유기능을 100%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발했다.

기존 MTS 기능을 스마트 폰으로 단순히 옮기는 데 그쳤던 주식매매 서비스에서 차별화를 두

베트남 주식중개 서비스 실시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1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베트남 주식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베트남 주식중개 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 해

외주식부를 통해 주문이 이루어지며, 요청된 주문은 베트남 현지 자회사인 우리CBV증권하의 HTS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 베트남주식주문은 매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만 주문접수를 받는다.



◆펀드 유형별 수익률

◆펀드 유형별 수익률 -주식형

-주식형	
	펀드
이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1(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2(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3(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4(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5(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6(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7(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8(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9(주식)
	한국투자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주식)
를	KRB글로벌투자증권(주식) 1(주식)
	KRB글로벌투자증권(주식) 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주식)
다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주식)
단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주식)
위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주식)
기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주식)
하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8(주식)
자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8(주식)
금	글로벌투자증권(주식) 6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7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8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9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0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1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2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3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4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5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6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7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8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19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0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1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2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3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4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5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6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7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8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29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0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1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2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3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4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5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6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7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8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39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0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1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2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3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4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5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6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7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8(주식)
사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8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7(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8(주식)
회	글로벌투자증권(주식) 499(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0(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1(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2(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3(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4(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5(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6(주식)
	글로벌투자증권(주식) 507(주식)

■ 고덕주공 2단지엔 무슨 일이

시공사 선정 철회이어 조합장 해임

비대위 '시공사 선정에 문제'...조합측 '임시총회 효력정지' 충돌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이 접임가경이다.

지난달 초 조합원들이 무상지분을 문제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보이콧 하더니 이번에는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을 해임시켰다. 무상지분율에 불만을 품은 비상대책위원회(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지킴이)와 기록권을 쥐고 있는 조합측이 강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비상대책위원회.지킴이)에 조합원 2820명 중 1421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변우택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 10명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비대위는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다시 뽑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등 기존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근 고덕주공 6단지(174%)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무상지분율 때문.

실제로 GS건설과 삼성건설 컨소시엄은 143%라는 낮은 지분율을 제시, 조합원들의 실망

을 샀다. 게다가 시공사 선정지침마저도 지나치게 조합에 불리하게 작성돼 있다는 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건설사와 조합이 유착관계 없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있기 직전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돌린 것이 확인돼 조합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 "시공사 선정지침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의 조합장으로는 제대로 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며 "깨끗한 집행부를 구성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측은 일단 이달안에 조합장을 포함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내달 10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조합측도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9일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 결과를 보면)여러가



낮은 무상지분율(140%대)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하는 사태가 벌어진 고덕주공 2단지 전경.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안에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정황상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임시총회 효력정지처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있을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던 8개 건설사들 중 입찰 제안서를 받게된다. 컨소시엄을 배제하며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덕주공2단지 는 지난 2002년 삼성건설과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곳. 하지만 최근 인근 고덕주공 6단지에서 두산건설이 174%라는 높은 무상지분율을 제시하며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에 자극받은 고덕주공 2단지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는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삼성건설, GS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배 기자 sbkim@

용산 '태풍의 핵'...시프트도 관심

경기도선 GTX 거점 지역 어디로 결정될 지 주목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김문수 현 경기도 지사의 재집권 성공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이슈가 남발한 반면 눈에 띄는 '개발 공약'은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지만, 오 시장이나 김 지사가 1기 집권시기에 내놓은 계속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발 관련 계속 사업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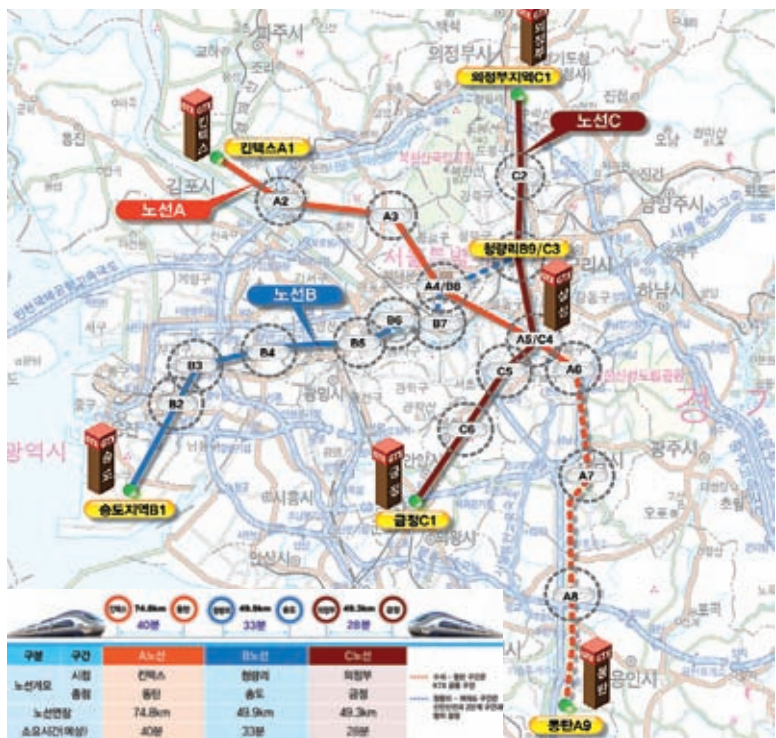
서울 부동산 시장 = 용산·여의도·강남 등 한강 주변지역이 투자처로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한강변 공공성 재편계획을 발표하며 우선 적용대상인 5개 전략정비구역(성수·압구정·여의도·합정·이촌)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5개 유도정비구역(반포·당산·자양·잠실·망원)을 선정했다. 또 이들 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50층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개발호재가 풍성한 이들 지역에 오 시장 재선으로 다시 들쭉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세권 아파트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세훈아파트'라 불리는 시프트와 관련이 있는 것. 높은 청약경쟁률에 큰 인기를 끌며 서울시의 대표적 주거모델로 자리잡은 가운데 오 시장은 2018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로 인기몰이에 나설 예정이어서 서울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이 몸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의 주가도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역세권, 용산공원, 용산부도심, 한남뉴타운 등을 통합관리하는 광역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바로 용산이 미래 서울의 진정한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세우기로 한 것.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용산역 중심 교통인프라 재정비 및 신규노선 발굴, 부도심 일대 중심기능 강화, 남산~용



산~한강~여의도를 잇는 관광벨트 조성 등이다.

특히 PF대출 보증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글로벌 베스트 10 세계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이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남재건축 시장이 살아날지도 주목된다. 강남에서 물표를 받은 것도 강남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로운 대중교통수단이다. 3개 노선 총 174km 거리의 GTX를 2018년까지 개통해 경기도 주요 지역과 서울을 거미줄처럼 잇겠다는 것. 벌써부터 새로 생기는 역이 주변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1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 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동두천,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 39호선(송추~동두

강남 재건축·용산국제업무지구 탄력 받을듯 고도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 해제 '핫이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용역을 상한이나 재건축 시한 연장 등 이슈들에 대해 서울시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 =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지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GTX는 지하 40~50m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도심을 통과하는 새

천 간) 도로를 확장하고 제2 외곽순환도로(포천~파주) 및 포천~서울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29개 미군기지가 순차적으로 반환되면서 주변 지역 개발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산업 및 생산기반시설,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체육복합리조트 등을 두루 갖춘 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

호가격차 1억넘는 아파트 매물 속출

매수세 위축 초래로 주택 거래 더 어려워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호가차이가 최고 1억원에 달하는 등 호가 격차가 큰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큰 호가격차는 그렇지 않아도 매수세가 약세인 매매시장에서 거래 성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값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간혹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뿐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매매값이 계속 곤두박질 치자 집 주인들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는 도저히 팔 수 없다"며 호가하락을 멈추고 있는 반

면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보자"는 기대심리로 매입을 미루고 있다.

이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하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벌어지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27평(공급면적 기준 89㎡)은 매도자는 7억원에 내놓았지만 매수하려는 수요자는 6억원을 불렀다. 이에 앞서 거래된 동일한 단지의 급매물이 6억5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2단지 16평(전용면적 기준 55㎡)은 매매물건이 7억1500만~2000만원을 호가하지만 매수 희망자는 6억7000만원을 요구해 최대 5000만원의 호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목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5평을 예를 들면 호가 격차가 7000~8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그렇지 않아도 거래가 뜸 끊어진 상황에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급하게 처분해야 할 급매물이 아니면 가격이 크게 저평가되지 않다"며 "매수자들이 막상 사려고 보니 예상보다 가격이 싸지 않아 매입을 미룬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장에 급매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매수세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중개업계는 전한다. 현재 주택대출 금리가 낮은 탓에 주택 보유자들로서는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지나 기자 kjn@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액 17개월만 최저

2금융권 대출규제로 직격탄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 경매 낙찰가액이 2008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이 지난달 수도권아파트 낙찰가총액과 낙찰건수를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 경매 낙찰가액이 3억1567만원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총액은 1715억475만원, 낙찰건수는 543건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8년 12월 2억9945만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액이다. 입찰자들이 입찰가액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써내면서 낙찰가총액 감소폭이 낙찰건수 감소폭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수도권아파트 낙찰건수는 767건으로 지난달(543건)에 비해 29.20%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낙찰가총액은 -36.86%(2714억4614만원-1714억475만원)로 감소폭이 더 컸다.

수도권아파트 건당 평균 낙찰가액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9월에는 3억9554만원을 기록하며 4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월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행을 기점으로 낙찰가는 하

락세로 돌아섰다. 올 3월에는 3억3987만원, 4월 3억2051만원, 5월 3억1566만원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건당 평균 낙찰가액이 4억7812만원으로 지난해 3월(4억1697만원) 14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인천지역이 1억8594만원으로 지난해 5월(1억8323만원)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는 10억원대 고가아파트 낙찰률이 4월에 비해 증가하면서 평균 낙찰가액이 전달보다 241만원 가량 상승한 2억 6406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지나 기자 kjn@



현대증권에서 스마트폰을 준대!

난 벌써 하나 챙겼지이~

스마트폰 공짜로 받기 참~ 쉬운거~쥬?

뽕 터지는 스마트폰 이벤트

현대증권 스마트폰 주식매매서비스 오픈기념 이벤트 기간 | 2010년 5월 10일 ~ 2010년 6월 30일

하나. 수수료가 뽕원

스마트폰으로 현대증권 주식거래를 하시는 고객님께 6월 30일까지 주식매매 수수료가 면제해 드립니다.

(유관기관수수 및 세금계 제외)

대상 | 현대증권 스마트 프로그램 이용 신규/기초고객 대상으로 프로모션 참가 고객 (프로모션 약정조건 충족시) 기간 | 2010년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매매분에 한함

* 수수료는 매매 당일 정상 청구되며, 결제일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두. 공짜 스마트폰이 뽕터진다

단말기 모델 : 아이폰(16G) 갤럭시 A 의무사용기간 : 24개월 | 약정조건 : 500만원 이상 / 월 할부금 지원 : 11,000원 / 월

* 약정조건(500만원이상/월) 충족시 단말기 할부금 지원해드립니다. * 첫 거래월 할부금은 매매 금액에 상응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이벤트 기간내 스마트폰 단말기 추가시 추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미 스마트폰을 소유하신 고객에게는 가맹점 지정에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월 후 24개월 이내 단말기 중도 해지시 이벤트 지원이 중단되며, 통신비용에 대한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월 의무주거래금액은 체결기준 금액으로 선정하며, 다음달로 미결제 됩니다. * 월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여금 및 부가세는 고객 부담입니다. * 사용기간 중 요금제 변경은 불가능하며, 요금제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뽕뽕한 선물까지!

주문고객 중 추천하여 아래의 경품을 드립니다



* 경품의 상가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추첨일 기준으로 이메일 미등록시 경우 당사 CMA게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고객의 계좌정보를 무단으로 본 경우는 현대증권에서 제재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시제 제 20352호 (2010년 5월 10일~2010년 6월 30일) 당사는 투자상품 등에 관해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식거래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두산家 3·4세 (주)두산 통해 그룹 장악

순환출자 해소위해 계열사 매각...박정원 회장등 4세 8명 경영 참여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기침체란 파고를 헤쳐 나가면서 내적인 물과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한다.”

지난해 3월 두산그룹 회장을 맡은 박용현 회장의 취임일성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7년 ‘갑깅’ 인수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맞물려 유동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박 회장은 ‘현장과 소통 경영’을 전면에 내세워 그룹의 체질 개선에 앞장섰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지만 내리는 ‘탁상경영’은 지양했다. 1년간 박 회장은 국내의 출장 총 20회 이상, 비행거리로만 총 10만km 이상을 다녔다.

박 회장의 취임과 함께 두산은 변하기 시작했다. 3년간 준비했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한 데 이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6월 (주)두산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51대49 비율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산DST 등 3개 계열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매각, 7808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 결과,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감소했지만 매출액 17조2080억원, 부채 19조3430억원, 부채비율 206.94%을 기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

구조조정과 공격적 투자

두산그룹은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진행했다. 금융위기를 앞두고 진행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회사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박 회장은 과감한 결단으로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구조조정을 끝낸 뒤에도 과감한 투자가 뒤따랐다. 지난해 9월 두산은 체코의 발전설비 업체인 스코다파워를 4억5000만 유로에 인수했다. 경기불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필요한 인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발전소 핵심설비인 터빈의 원천기술이 없었던 두산으로선 스코다파워가 어느 기업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다음 프로젝트는 ‘글

로벌 생산기업 구축’이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쯡꾸엣 지역에 ‘두산비나’라는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총 300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간 두산비나는 보일러 공장, 석유화학설비공장 등 5개 공장은 물론, 자체 부두와 항만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9월 중국 서중그룹과 중국내 건설기계, 대형트럭과 발전기용 디젤엔진을 생산, 판매하는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분할과 자산매각 단행

두산그룹은 지난 2006년 3년 이내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시정과의 약속을 지켰다. (주)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지난해 4월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산그룹은 생물자원, 두산타워 등 사업분할, 종가집 김치 매각, 테크팩 사업 매각, 주류사업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한 바 있다. 현재 지주회사 두산은 두산중공업·네오폐력스 등의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두산캐피탈

(주)두산 자회사 1분기 실적 (10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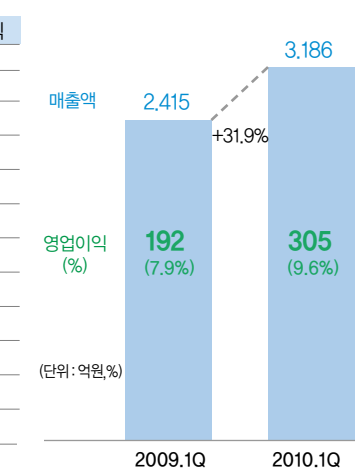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두산중공업	12,787	727	65
두산모트롤	891	731	122
두산동아	469	-8	-35
두산생물자원	303	3	12
오리콤	157	1	0
두산타워	138	50	14
네오폐력스	106	51	39
DIP홀딩스*	-	124	97
두산DST	2385	187	149
SRS	611	54	39
섬화왕관	178	14	1
KAI	3044	284	301

등 손자회사, (주)엑스콘 등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두산그룹은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인 (주)두산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구조다.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주)두산 회장 등 총수일가와 자사주 등을 포함해 특수관계인이 63.1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주)두산 지분은 박용곤 명예회장 3.45%, 박용성 회장 2.47%, 박용현 회장 2.44%, 박용만 회장 3.31%,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4.12%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박 명예회장의 장녀 박혜원 두산매거진 상무와 차남 박지원 두산중공업 사장이 각각 1.37%와 2.75%를, 박용성 회장의 아들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전무가 3.02%, 박용현 회장의 아들인 박태원 두산건설 전무와 박형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박인원 두산엔진 부장도 2.23%와 1.65%·1.65%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두 박용만 회장의 아들인 박서원 빅 엔트 인터내셔널 대표와 박재원씨도 1.63%와 1.34%의 지분 나눠 갖고 있다.

(주)두산은 그룹 핵심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의 최대주주로 4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8.83%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두산그룹의 양대 사업축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소문에 흔들린 두산그룹

두산그룹은 그러나 최근 증언가를 중심으로 나돌던 ‘유동성 악화설’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다.

소문의 발단은 두산건설의 일산 위터더제니스 미분양과 1300억원 회사채 발행이다. 이 같은 사실이 증언가에 퍼지면서 유동성 악화설로 이어진 것이다. 두산은 곧 바로 그룹 차원에서 유동성 악화설은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유동성 악화설에 이어 뜬금없이 자회사 유상증자설이 나는 등 악성투머로 인해 홍역을 치러야 했다.

두산그룹의 유동성 악화설의 중심에 지난 2007년 인수한 미국 건설기계 업체인 ‘팍팍’이 있다. 인수 당시 29억달러 가량을 차입한 두산은 당시 대규모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급기야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팍팍의 실적이 난조를 보였고 두산의 현금유출은 계속됐다.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산은 지난해 두산DST 등 자



회사와 한국우주항공산업(KAI) 지분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10억 달러를 팍팍에 송금했다. 이는 올해 필요할 자금까지 감안한 금액이다.

두산측은 이번 투머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적어도 2012년까지는 유상증자는 필요없게 됐다”며 “두산이나 두산인프라코어, 팍팍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투머가 흘러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박용현 회장이 취임 1년만에 두산그룹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속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이는 두산의 이미지와 성장에 대한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두산그룹은 이같은 유동성 위기가설이 지속되자 두산엔진을 연내 상장키로 결정했다.

2008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지속한 두산엔진은 모기업인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기도 했다. 두산엔진의 지분을 53%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주)두산은 두산엔진의 적자로 지분법 손실을 입고 이것이 실적개선을 늦추는 원인이 된 것이다. 두산그룹은 이에 따라 두산엔진을 상장하고 신규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을 꾀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빨라진 두산家 4세 경영

두산그룹 4세들은 지난 2008년 대거 임원에 오르면서 경영일선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지난해 박용현 회장 등 3세 경영진이 모두 경영일선에 복귀한데다 두산가(家) 4세중 만형인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을 회장으로 승진시켜 두산그룹 최고경영진에 합류시켜 향후 후계구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그룹에 두산가 4세로는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회장과 장녀인 박혜원 상무, 차남

인 박지원 사장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아들인 박진원 전무와 박석원 상무,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의 아들인 박태원 전무, 박형원 상무, 박인원 두산엔진 부장 등 8명이다.

박용만 (주)두산 회장의 아들인 박서원씨는 빅 엔트 인터내셔널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재원씨도 아직 그룹에 입사하지 않아 후계구도에서 빠져 있다.

지난 2007년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박지원 사장은 작년년부터 (주)두산 사장(COO)을 겸하고 있다. 작은아버지인 박용성 회장이 대한체육회 활동에 전념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체코 스코다파워 인수를 진두지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등 그룹 안팎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혜원 상무는 오너 일가중 유일한 여성으로서 매거진·출판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두산그룹 광고 및 마케팅을 전담하면서 내로외로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박지원 전무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종합기계 인수전에 참여한 후 전무로 승진했으며 회사의 핵심사업인 산업차량R&D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6월) 하순경 진행되는 두산그룹의 정기인사에서 이들 4세의 승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박진원 전무. 작은아버지인 박용만 회장이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지만 지주사인 (주)두산에 힘을 쓰고 있으며 사촌형인 박정원 회장이 등기임원에 속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사장단에 오를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첫 여성 CEO를 배출하는 등 여성 임원 등용을 적극 권장하는 그룹 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박혜원 상무의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용현 회장의 세 아들인 박태원 전무와 박형원 상무, 박인원 부장도 업무 능력 이외에도 박 회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하는 만큼 승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i@

국순당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식 건배주 선정!

우리술은 우리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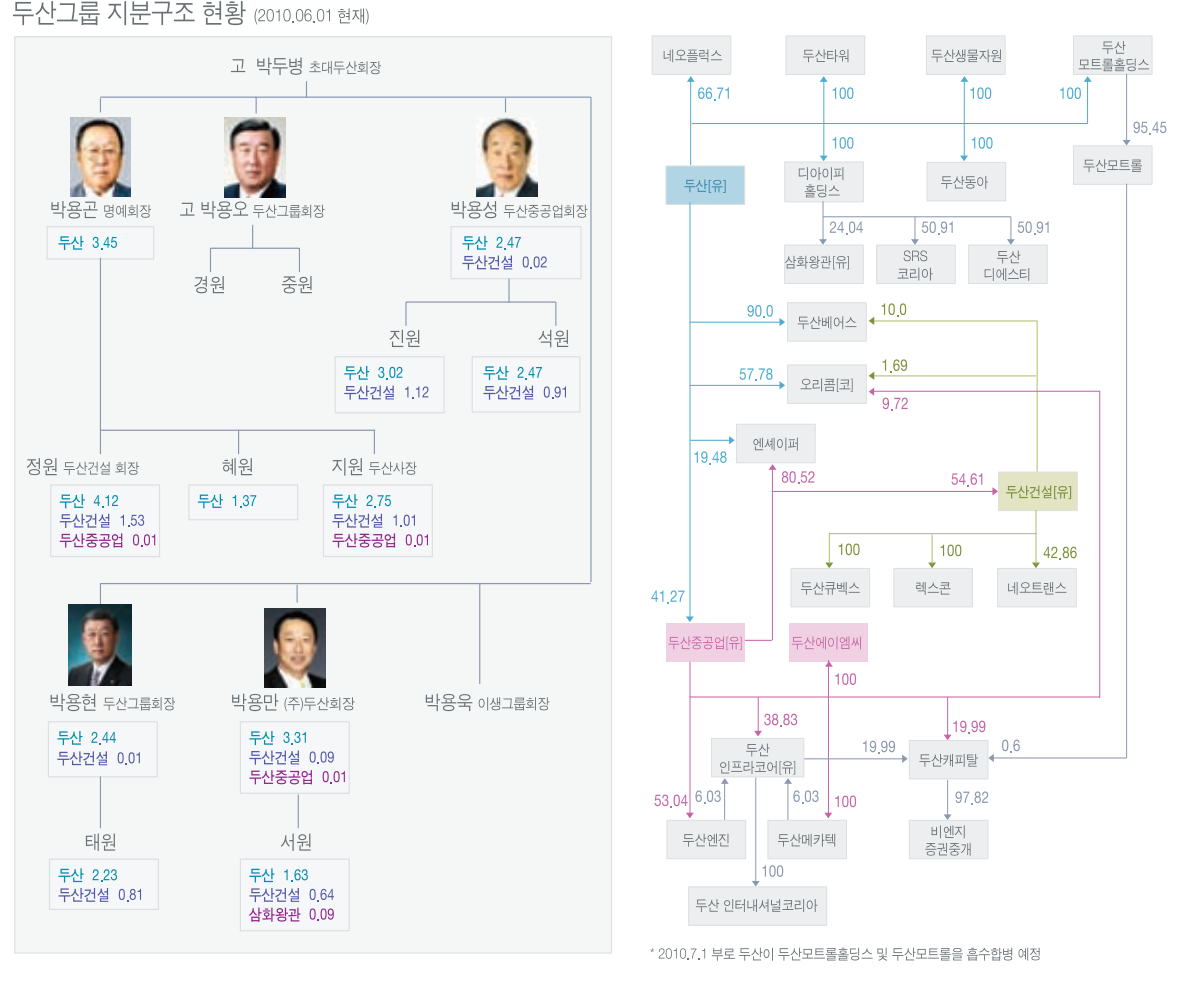
우리쌀로 빛은 국순당 생막걸리 탄생!

- ✓ 우리 햅쌀로 빚어 맛이 진하다
- ✓ 방부제 없이 30일 동안 신선하다
- ✓ 냉장유통으로 품질이 일정하다

특허획득 발효제어기술 (특허등록번호 : 10-0936994)

국내 최초로 삼페인 발효법을 접목하여 개발된 발효제어기술은 밀폐캡을 통한 외부공기 차단과 10℃ 이하의 철저한 냉장유통 관리를 통해 살아있는 효모의 활성화를 조절하여 최상의 맛과 신선함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수확 1년 이내 우리 햅쌀 100%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0-2553호(2010.5.19~2010.6.11)

삼성을 대표하는 명품펀드에 맡겼다 세계를 대표하는 3D TV를 받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자산운용이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큰 믿음으로
삼성 스트라이크 펀드와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에 투자하시는 고객에게 3D LED TV를 드립니다!

삼성펀드 3D TV 페스티벌

- ▶ 응모조건
삼성 스트라이크 펀드,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펀드
가입 고객 중 가입 금액에 따라 응모권 부여
• 적립식 월 20만원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3년 이상 자동이체 조건)
• 거차식 500만원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 1억 이상 투자시 1억 단위로 응모권 1회 부여 (별도 추첨)
- ▶ 추첨방식
총 3회 추첨(7, 8, 9월초)하여 매월 6명씩
총 18명에게 증정 (세세공과금 당사 부담)
※ 매월 6명 추첨 - 제1시 / 1억 미만 거차식 투자자(4명), 1억 이상 거차식 투자자(2명)
※ 추첨 후 연례세대로 홈페이지 등에 당첨자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
- ▶ 행사기간
2010년 5월 24일 ~ 201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한 고객 대상 (8월 31일 오후 3시 이전 매수신청까지 유효)
- ▶ 경품내용
삼성 PAVV 3D LED TV 46인치(총 18대)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부재,
주소지불명 등의 이유로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수상자직이 상실됩니다



코스피 대비 9.2배 수익률! (3년 누적수익률 기준) 1.6배 수익률! (1년 누적수익률 기준) 삼성 스트라이크 증권 펀드 [주식]

베터랑 펀드매니저의 철저한 분석, 공격적 종목 선정으로
2010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겨나가는 공격적 운용 펀드

구분	1년	3년	10년
스트라이크 - Class C	29.7	34.2	312.2
KOSPI	18.5	3.7	124.6
벤치마크	17.7	4.9	123.8

- 기준일 : 2010.5.12(세전) • 설정일 : 2000.1.4 • 설정액 : 515억(세전)
- 벤치마크 : KOSPI 95%+CD 5% • 출처 : 제로인, 삼성자산운용
- Class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와 설정일 등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통 판매사 :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동부증권, 중앙종합금융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 스트라이크 판매사 : 국민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LIG투자증권, 한양증권, 흥국증권
- 코리아대표그룹 판매사 : NH농협,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교보증권,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애플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토러스투자증권, 금호생명, 대한생명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 참고 또는 콜센터 080-377-4777 (상당: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문의하세요

1. 환매방법 : 오후 3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오후 3시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2. 환매수수료 : 스트라이크-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단 적립식 Class는 180일 미만 이익금의 70%, 코리아대표그룹-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3. 신박보수 : 스트라이크 Class A-선취 1%+연 1.43% (판매 0.72%, 집합투자 0.68%, 신박 0.03%), Class C-연 2.11% (판매 1.40%, 집합투자 0.68%, 신박 0.03%), Class Ce-연 1.97% (판매 1.26%, 집합투자 0.68%, 신박 0.03%), 적립식 Class-연 1.97% (판매 1.26%, 집합투자 0.68%, 신박 0.03%), 코리아대표그룹 Class A-선취 1%+연 1.69% (판매 0.90%, 집합투자 0.76%, 신박 0.03%), Class C-연 2.29% (판매 1.50%, 집합투자 0.76%, 신박 0.03%), Class Ce-연 2.28% (판매 1.49%, 집합투자 0.76%, 신박 0.03%)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에 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대비 6.1배 수익률! (3년 누적수익률 기준) 1.6배 수익률! (1년 누적수익률 기준) 삼성 코리아대표그룹 증권 펀드 [주식]

세계가 놀란 코리아 대표기업의 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눈부신 실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그룹주에 투자

구분	1년	3년	설정일 이후
코리아대표그룹 - Class A	28.7	22.6	53.3
KOSPI	18.5	3.7	15.9
벤치마크	17.7	4.9	16.7

- 기준일 : 2010.5.12(세전) • 설정일 : 2007.1.2 • 설정액 : 4,458억(세전)
- 벤치마크 : KOSPI 95%+CD 5% • 출처 : 제로인, 삼성자산운용
- Class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와 설정일 등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 화학계열사, 새 먹거리 찾았다

토탈-에너지, 제일모직-멤브레인, 석유화학-바이오, 정밀화학-폴리실리콘

삼성그룹이 신사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 화학계열사들도 바이오·폴리실리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토탈은 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정하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토탈은 최근 충남 대산공장에서 저장능력 4만t 규모의 LPG(액화석유가스) 탱크를 준공하고 제품을 출하했다.

삼성토탈은 연간 100만t의 LPG를 수입해 60만t은 나프타(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대체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만t은 국내 정유사와 서울, 경기 지역의 대리점 및 독립 충전소 등을 통해 자동차용 LPG로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는 항공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순차적으로 생산, 출시에 나선다. 항공유는 연간 50만t, 선박유는 10만t을 생산해 중국 및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제일모직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문을 집중 육성키로 함에 따라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유기물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전자재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친환경 수처리사업 분야를 선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왕R&D센터에 멤브레인 연구 개발을 위한 파일럿 생산 공장 설비를 구축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멤브레인’이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매개체로서, 형태, 소재 등에 따라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반면 삼성석유화학은 화학산업

에 바탕을 둔 바이오분야 진출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바이오 관련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석유화학은 최근 바이오사업을 주도할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석유화학은 현재 바이오케미컬 연구인력을 모집중이며 특히 에너지 연구 및 사업화가 가능한 경력직을 채용중이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통해 얻는 에너지) 연구인력도 모집 중이다.

이는 화학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회사의 주력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석유화학의 주력제품은 고순도 테레프탈산(TPA) 1가지로 신수종사업 진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삼성석유화학이 ‘화학 지식기업’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만큼, 바이오사업을 회사의 주

력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TA는 석유정제를 통해 얻어지는 PX(Para-Xylene)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polyester)와 페트병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PTA는 최근 포장용 필름, 일반 PET병, 맥주 등 포장용기, 타이어코트등, 페인트, 접착제에 이르기까지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편 태양전지와 LCD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을 삼성그룹 화학 계열사중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시장에선 삼성정밀화학의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화학계열사별로 신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미래 신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계열사간 사업이 오버랩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LS전선, 국내 첫 해저케이블 출하

진도-제주 315km 250kV급 케이블 설치



지난 1일 LS전선 동해공장에서 열린 해저케이블 초도 출하식에서 LS전선 구자열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LS전선이 지난 1일 강원도 동해시 송정산업단지에 위치한 동해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250kV급 해저케이블을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된 케이블은 국내 최대인 3300억원 규모의 진도-제주 간 프로젝트에 공급될 물량으로, 총 315킬로미터, 총 중량 6,000톤, 지름 18.2센티미터의 매머드 해저케이블이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케이블 2개와 통신용 1개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길이는 105킬로미터다. 이렇게 3개 케이블로 구성된 1회선을 진도-제주 간에 걸쳐 왕복으로 설치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요체다.

이번에 출하된 해저케이블은 세계 1위 컨테이너 운영사 머스크

(Maersk)의 포설선 ‘리스폰더(Responder)’에 선적돼 전라남도 진도로 이동 후, KT서브마린과 공조를 통해 진도-제주 간 105km 구간에서 6월부터 설치를 시작, 추가로 1회선을 포설해 2011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저케이블은 국가간 또는 육지와 도서간 전력, 통신은 물론 가스, 물까지 수송을 가능케 하는 최첨단 케이블로 LS전선은 205kV급 해저케이블을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해저케이블은 중간 단락없이 필요 길이만큼 한 번에 생산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으로 LS전선이 105km 길이의 해저케이블 생산에 성공한 것은 그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송영록 기자 syng

채권단, GM대우 대출 만기 1개월 연장

GM대우자동차 채권은행들이 오는 3, 4일 도래하는 GM대우 대출금 만기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GM대우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3일 3700억원 4일 7500억원 만기 등 총 1조1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출금 만기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GM대우는 계약서 대로 3개월까지 연장에 달라고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1개월만 연장해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만기를 1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채권은행들로부터 동의서를 받

고 있다.

당초 채권단은 GM이 기술이전 등 채권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고, GM대우는 채권단이 대출금 연장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GM대우 관계자는 “채권단이 대출금 연장을 거부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었지만, 유동성을 가져가게 좋다고 판단해 계약조건에 맞춰 채권단에 연장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삼성 갤럭시S 세계 100여국 동시 판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폰 ‘갤럭시S’가 세계 100여개국에서 동시 판매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S는 세계 100여국 110여개 통신사를 통해 동시에 출시된다.

갤럭시S를 출시하기로 한 세계 주요 통신사는 미국의 4대 통신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AT&T, T모바일과 영국의 보다폰, 프랑스 오렌지, 독일 도이체텔레콤 등이다.

특히 미국 4대 통신사가 동시에 한 모델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만 디자인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전 세계 110여개 통신사가 한 모델을 동시에 출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갤럭시S는 삼성전자가 품질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해외 IT전문지와 파워브로거 등도 호평을 보내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ng



LG,중장기 경영전략 재점검

8일부터 컨센서스 미팅 돌입...차세대사업 집중 논의



구분무 회장

스 미팅(CM: Consensus Meeting)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컨센서스 미팅은 8일 LG상사를 시작으로 하루에 한 계열사씩 진행될 예정이며 계열사별 미팅 일자는 CEO 일정 등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태양전지, 차세대조명, 총합공조, 차세대전

지, U-헬스, 스마트그리드 등 차세대 성장엔진 6개 분야에서의 계열사별 중장기 사업전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난 4월 발표한 LG의 그린경영 전략인 ‘그린 2020’의 계열사별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LG의 컨센서스 미팅은 구분무 LG 회장과 LG전자, LG화학, 통합LG텔레콤, LG상사 등 주요 계열사 CEO 및 사업본부장들이 만나 각사의 전략을 합의·결정하는 LG만의 차별화된 전략 회의다.

198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2년째 지속되고 있는 컨센서스 미팅은 ‘합의’와 ‘지율’을 존중하는 LG만의 기업문화를 반영한 차별화되고 독특한 전략회

의로 자리매김했다.

컨센서스 미팅에서 구분무 회장은 LG가 나아가야 할 큰 틀에서 각 계열사의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전략을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는 사업전략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철저한 책임경영을 실천하게 된다.

컨센서스 미팅은 매년 6월과 11월 연간 2회 실시하며 이번에 실시하는 미팅은 중장기 사업전략을, 11월에 실시하는 미팅은 당해년도 실적점검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송영록 기자 syng

삼성전자로 옮긴 LG 전 임원 사표

1년간 동종업계 전직 규정 위반 결국 사직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위해 LG생명과학에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김규돈 상무가 최근 전직제한에 걸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상무는 지난 2월초 삼성전자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

하고 있는 실무부서인 신사업추진단에 영입됐다.

그러나 LG측이 1년간 동종업계 전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김 상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LG생명과학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2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LG생

명과학에 매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이후 김 상무는 삼성전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삼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LG생명과학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특히 국산신약이면서 최초로 미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팩티브’를 개발한 국내 바이오신약개발 최고 전문가다.

곽도훈 기자 sogood@

중기청, 100개사 해외 마케팅 지원

성장 잠재력 뛰어난 100만달러 이하 업체 선정

중소기업청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100만달러 이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해외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할 10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업체는 에이치와이티씨, 메마켓월드, 해브앤비 등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최초로 지정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교육,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수출금융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업체들은 지난해 평균수출실적이 39만불로서 수출 전문가 및 기업을 통한 타겟시장 현황, 경쟁사제품 및 유통구조 분석 등 심층시장조사와 중장기 수출전략 수립의 국내외전시회 참가, 홍보 및 제품디자인 개발,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의 지원을 통해 수출 500만불 달성에 도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및 수출유관기관의

연계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수출입 금융(0.5%) 및 일반대출(0.3%), 수출입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0.6%)시 금리우대,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전력분야 해외유명 발주처 등록 및 건설계약관련 자금(계약금액의 50%) 등을 지원한다.

해외시장과 김유숙 과장은 “올해는 중소기업의 진출국가 및 전략 등 해외마케팅 역량에 비중을 두어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있는 업체를 선발했으며 연도별 지원성과를 측정해 지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수요에 맞추어 현지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글로벌브랜드 등 지원사업과 조속연계해 단기간에 500만불이상 수출실적 달성을 지원하도록 모든 지원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

좋은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1세기형 문화 판촉물 월간 <여행스케치>를 선물하세요

월간<여행스케치>는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여행지를 직접 취재하여 펴내는 여행 전문 교양잡지입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내용만큼은 알합니다. 전국 유명 여행지, 산과 계곡, 포구와 섬, 농산어촌마을, 진짜 맛있는 지역 특산물과 맛집, 펜션이나 리조트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할까?

- 자주 뵙지 못하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선물하세요.
- 매월 만나야 하는 거래처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매주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선물하세요.
- 증권회사 객장, 은행 객장, 우리 회사 대리점과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선물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다량 구매시 다양한 특전이 있습니다.
-비용을 할인해드립니다.
-귀사의 홍보하고 싶은 신상품을 특별 지면에 홍보해드립니다.
*잡지 구매 및 문의 상담 : 02-795-3364 이보영 사원

[주] 하이미디어 P&I와 [주] 이투 데이는 기획과 제작, 마케팅을 함께하는 제휴회사입니다.

(주)하이미디어 P&I에서는... 귀사의 잡지와서보, 단행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귀사와 고객이 원하는 책을 기획해서 취재, 편집, 디자인, 제작, 발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드립니다. 경력과 능력이 출중한 취재, 사진, 디자인,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예산에 맞춰 판촉물을 개발, 제작해드립니다.



[주] 하이미디어 P&I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41-1 하이미디어빌딩
홈페이지 www.ktsketch.com Tel 02-795-3364, 6634

:: 좋은 판촉물 하나가 회사를 살립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車가 몰려온다

수입차업계 틈새시장 겨냥 결잉도어 등 신개념 차 있다라 출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세그먼트나 디자인의 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세단이나 쿠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해치백 등 모델이나 차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 선보이는 차들은 세단인지 쿠페인지 구분이 쉽지 않거나,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장점을 결합했다거나, 심지어 차 문이 위로 열리는 '결잉 도어'를 적용한 차가 선보이는 등 다양하다. 특히

수입차업체들에서 이런 니치 마켓(Niche Market, 틈새시장)을 겨냥한 차들을 출시하고 있다. BMW코리아에서는 오는 8일 한강 마리나 제페(Marina JEFFE)에서 PAS(Progressive Activity Sedan)이라는 전혀 새로운 장르의 자동차인 그란 투리스모(Gran Turismo)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그란 투리스모는 고성능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주행을 해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으며, 거기다 BMW의 이 피 션 트 다이 내 맥 스(EfficientDynamics) 기술이 적용돼 효율성까지 갖췄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BMW 그란 투리스모는 우아함, 공간감, 승차감, 다양성 등이 조화를 이뤄 기존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새로운 장르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BMW 그란 투리스모는 고정밀 직분사 방식과 BMW 뱀브트 로닉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6기

통 기술인 엔진이 장착됐다. 또한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제공돼 편안한 기어변속이 가능하다. 공간 면에서는 뒷좌석 레그룸은 BMW 7시리즈와 동일하고, 헤드룸은 X5와 같은 정도로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게 설계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변화의 흐름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항상 새로운 세그먼트를 개척해온 BMW는 지난 2008년 6월에는 독창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역동적인 주행성능이 돋

보이는 세계 최초의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ports Activity Coupe, SAC)인 X6를 국내 출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의 프리미엄 콤팩트 SAV인 X1을 국내 시장에 출시해 큰 관심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5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조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형차 대표 브랜드인 BMW 미니(MINI)에서는 미니의 SUV 모델인 미니 컨트리맨을 지난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보인 바 있다.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는 미니 고유의 개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4미터 이상의 길이와 함께 넓은 실내 공간, 높은 지상고 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도 올 하반기 자사 최초의 문이 위쪽으로 열리는 '결잉 도어'를

장착한 'SLS AMG'를 출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 SLS AMG는 300 SL을 재해석해 만든 슈퍼카로 6300cc 8기통 엔진이 탑재됐다. 최고출력은 571마력, 최대토크 66.3kg·m의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달 27일 수입 중형세단의 대표 모델인 E클래스에서 최초로 지붕이 열리는 '뉴 E350 카브리올레'를 출시했다. 스포트탑을 적용한 '뉴 E350 카브리올레'는 배기량 3498cc, V형 6기통 엔진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35.7 kg·m을 발휘한다. 한편 아우

디코리아에 서도 하반기 525마력의 V10엔진을 장착한 오 픈 스포츠카인 R8 스파이더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러한 전혀 새로운 장르의 차들을 내놓는 이유는 최근 몇 개월간 국내 수입차 판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대중화의 길로 진입했다는 점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산차들의 품질력이 수입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아우디 R8 스파이더



벤츠 SLS AMG



벤츠 E 350 카브리올레



미니 컨트리맨



6월 한 달 국내 완성차 업계는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혜택을 비롯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프로모션 등이 눈길을 끈다. 각 메이커별 6월 프로모션을 살펴보자.

車업계 6월 신차 프로모션 ‘풍성’

국가유공자·다자녀·재구매등 특정계층 대상 혜택 제공

현대차 재구매·다자녀 가구 지원

먼저 현대차는 패밀리 재구매 이벤트를 선보인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모두 합해 현대차 4대째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과 군인(장교 및 부사관), 소방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증 판정자 포함)에게 20만 원의 할인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현대카드를 이용해 삼성 디지털플라자에서 150만원 이상을 결제한 고객이 현대차를 구입할 경우 20만 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에루스는 행사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이밖에 KT그룹 QOOK & SHOW와 제휴 이벤트를 마련했다. QOOK TV 신규 가입고객은 10만원, QOOK 인터넷 신규 가입고객 20만원, QOOK 인터넷+TV 동시 신규 가입고객 40만원 혜택을 주며 SHOW '현대차 요금제' 신규 또는 기존 가입 고객은 총 6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 고객(현 임신중 포함) 및 다자녀 고객은 10~30만원 할인혜택을 준다.

기아차, 여성·중고차 보장 할부 선보

쏘울과 포르테 여성 고객에게 '오토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6월 기아차에서 마련한 주요 프로모션이다. 여성 오너가 차수리를 받을 때 년 2회까지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전국민 더블 포인트' 이벤트를 통해 GS 포인트 5만 점 이상을 보유한 고객에게 오는 12월까지 5만 포인트를 사용하면 기아차를 10만 원 할인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로 포르테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할 때 무이자 유예 할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도 마련했다. 쏘울과 포르테, 포르테 하이브리드, 스포티지R과 쏘렌토R, K7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3년 내 당사 신차 재구매 시 최대 57% 중고차 가격 보장해줄 예정이다.

특별 저금리 할부인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기아차 일부모델 구입고객에게 36개월 5.0% 할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 및 다자녀(90년생 이후) 가구를 대상으로 10~3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모닝과 K5, K7, 스포티지R의 경우 20만 원 할인해준다.

이밖에 5년 이상 경과 차량 보유 고객, 기아차 재구매 고객, 수도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오너 등에게 10~30만 원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르노삼성, 재구매 고객 유튜브 지원

르노삼성자동차는 낮은 금리와 무이자 할부 등 차종 별 혜택 폭넓게 적용하고 차량 재구매 뒤통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유튜브비를 지원한다. 르노삼성은 기존의 강화된 조건과 더불어, 노후차량 교체지원 혜택과 선 포인트 서비스를 6월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합리적

인 제안으로 만족감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M7과 SM5 구매 고객들에게 할부 원금에 따라 가장 36개월까지 가능한 '마이 웨이(My Way)'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금리를 최대로 낮춘 '저리할부 (3~36개월: 3.9%)'와 '저리 바이백(Buy Back) 할부 (36개월/48개월: 5.9%)'를 SM7, SM5 그리고 SM3 CE에 적용하여 고객의 차량 구입가격 부담을 최소화한 고객혜택을 6월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이 2009년 12월 말부로 종료되었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SM7, SM5 차량 구매 시 유튜브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노후차량 교체지원을 이번 6월에도 유지한다. 또한 재구매 뒤통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재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삼성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선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SM7은 50만 원, SM5, SM3, SM3 CE, QM5는 30만 원을 미리 할인받고, 추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할인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GM대우, 마티즈·라세티 반값 유예할부

GM대우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라세티 프리미어를 대상으로 반값 유예할부 등을 선보인다.

현재 6년 이상 경과 소형, 준중형 차량 보유자가 토스카 구입시 추가 할인 100만원을 비롯해 마이 SUV 프로그램 (윈스톤/맥스)에 따라 현재 SUV 보유자가 윈스톤/맥스 구입시 추가 할인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밖에 35만원 상당의 DMB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출고기념품도 마련했다.

또한 GM대우 오토카드로 구매시 차종별 20~50만원 선포인트 할인을 비롯해 최대 200만 원 적립포인트 할인이 가능하다.

GM대우 참클럽 회원을 대상으로한 특별 할인도 마련했다. 해당 회원에 한해 1993년 이후 GM대우 신차 구입이력이 있는 고객은 재구매 대수에 따라 마티즈/마티즈 크리에이티브/다마스/라보는 10~40만 원, 기타 차종은 20~50만 원까지 추가 로열티 할인을 제공한다.

쌍용차, 신차 구입비 지원 및 무이자 할부

쌍용차가 6월 한 달 신차 구입비 특별지원 및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차종 별로 여름맞이 특별 신차 구입비 지원으로 체어맨 H와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구매 고객에게 5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로디우스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원의 특별 할인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이 체어맨 W나 체어맨 H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RV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주캐피탈과 제휴한 체어맨 특별 금융리스도 운영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차, 5월 내수판매 현대차 앞 섰다

K5, 스포티지R 등 신차 효과...신형 쏘나타 판매 급감

기아자동차의 5월 승용(RV포함) 내수점유율이 현대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차가 지난 1999년 기아차를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일 현대기아차가 발표한 5월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5월 내수 시장에서 승용 2만16340대, RV 7219대를 포함 총 3만3559대를 판매했다.

반면 기아차는 승용 2만2279대, RV 1만3221대를 판매해 총 3만

5500대를 판매해 현대차보다 1941대 판매대수가 높았다.

이는 최근 기아차에서 잇달아 내놓은 K7과 K5, 스포티지R, 쏘렌토 등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간 K5는 한 달 동안 3552대가 판매됐다. 현재 계약대수가 2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K5는 판매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K7역시 3269대가 판매돼 2358대가 판매된 현대차의 그랜저를 앞섰다.

그랜저는 이미 지난 2월 판매량이 3000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K7에 밀리기 시작했다.

신형 쏘나타 역시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처음으로 판매가 1만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K5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간의 자기잠식효과(카니발

라이제이션, 같은 기업의 다른 제품이 서로 간의 판매를 감소시키는 현상)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처음 기아차를 인수할 당시, 지금처럼 기아차가 급성장 할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반기 현대차에서 신형 아반떼를 출시할때 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5월 내수시장에서 총 4만9228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22.7% 감소했고, 기아차는 4만14대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김영진 기자 yjkim@

르노삼성 2011년형 SM7 키워드 ‘우아함’

선호도 높은 사양 기본 적용 고객 혜택 극대화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일 럭셔리 이미지와 고객선호도를 높인 '2011년형 SM7'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라바 그레이(Lava Grey) 외장 컬러를 새로 추가해 럭셔리 세단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펄 느낌이 가미된 고급스러운 와인색상의 최고급 나파(NAPPA) 가죽시트를 선택사양으로 마련해 고

객들이 새로운 럭셔리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모든 가족시트에는 음이온 코팅 기능을 추가했다. 탑승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르노삼성의 웰빙 드라이빙 컨셉트를 더했고 메탈릭한 느낌의 고급택 하이글로스 특수도장 휠로 SM7의 럭셔리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특히 새 모델은 고객선호도가 높은 인기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고객만족을 키웠다. 먼저 대형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뒷좌석 열선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의 마블우드그레인과 슬립한 디자인과 편의성이 돋보이는 전자식 룸미러

(ECM)에는 일체형 '하이패스'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장 마리 워터피제 사장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을 기본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고객 혜택을 극대화했다"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품성 향상과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형으로 거듭난 SM7의 판매가격은 ▲SE 2750만 원 ▲SE Pleasure 2870만 원 ▲LE 3080만 원 ▲RE 3270만 원 ▲RE35 3760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기아차, 이색 월드컵 마케팅 전개

유럽 10개국 무상 점검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자동차가 월드컵을 맞아 유럽과 남아공 현지에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추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월드컵 마케팅을 펼친다.

현대차는 1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위치한 현대차 서유럽법인(HME)에서 '월드컵 연계 유럽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2010 남아공 월드컵 기간을 맞아 유럽 주요 지역에서 '글로벌 비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10개국 28개 장소에서 약 1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글로벌 비포 서비스 기간 동안 현대차는 스텔런 오일 및 냉각수 보충, 타이어 압력 체크 등 육안으로 차량을 점검해주

는 '퀵 비주얼 헬스 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고객에게 축구공, 모자,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하는 한편 △향후에 딜러점을 방문해 차량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5월 29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소재 현대차 트레이닝 센터(Training Center)에서 현지 여성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여성고객 초청 행사'를 열고 △차량 점검 요령·응급 탈출법 이론 교육 및 실습 △30, ix35 등 주요 차종 시승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기아차도 월드컵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고 현지 고객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

김영진 기자 yjkim@

GM대우, 복지기관에 경차 35대 기증



GM대우는 임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 GM대우한마음재단(이하 한마음재단)'에 매월 기부한 후원금으로 경차 35대를 마련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지난 1일 GM대우에 따르면 이번 기증한 차량은 글로벌 경차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경상용차 다마스, 라보 등 총 35대다.

회사측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회복지기관에 연비가 좋고 유지비가 저렴하면서도 복지지역의 특징인 좁은 골목길

을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장점을 고려해 이번에 경차 및 경상용차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 차량들은 GM대우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 이날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35대를 기증함에 따라 GM대우는 지난 2002년 회사 출범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차량으로 총 165대를 기증하게 됐다.

김준형 기자 junior@

통신 3사, 강북 르네상스 '활짝'

SKT-을지로·KT-광화문·LGT-남대문 삼각구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빅3'인 SK텔레콤, KT, 통합LG텔레콤이 본격적인 강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며 새로운 경쟁구도에 돌입했다. 신성장 동력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중심지로 옮김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광화문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통합 후 조직개편 등이 맞물려 신사옥 이전이 가시화 됐다.

오는 7일부터 남대문로 신사옥 'L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LG텔레콤은 상암동 DMC와 역삼동 LG데이콤으로 분산된 조직을 합쳐 통신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만큼 남대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를 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로 입주하는 L타워는 지상28층, 지하 6층, 연면적 1만2583평 규모로 현재 강남, 삼남, 용산 사옥

에서 근무하는 PM(퍼스널 모바일), HS(홈 솔루션), BS(비즈니스 솔루션)사업본부와 전략조정, 경영관리, 경영지원, 인재경영, CR전략 등 스태프서 임직원 2000여명이 전층을 사용한다.

한편 기존 상암사옥에는 IT, 무선NW(네트워크), 기술연구실이, 용산사옥에는 유선NW 관련부서가 남는다.

신사옥 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명인 'LG U+'가 최종 승인되면 다음달 초 CI와 비전선포식으로 통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공식적인 상호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상표는 'LG U+', '엘지유플러스', 'LG유플러스', 'LG Uplus' 등을 사용하게 된다.

통합LG텔레콤 전략기획담당 전 성규 상무는 "LG와 유플러스 사명 결합은 LG의 '신뢰'와 '친근' 이미지에 유플러스의 고급, 세련, 신선함이 부가돼 소비자인식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의 탈통신 비전을 표현하고 고객에게 무한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주요 임직원이 분당 본사에서 서초사옥으로 옮긴 KT도 오는 2013년 안을 목표로 광화문 신사옥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1998년 광화문에서 분당으로 이전한 KT는 여전히 분당에 주요 부서를 두고 있지만 대외협력이나 고객지원, 홍보 등 CR부분 1000여명이 근무중인 광화문 사옥 역시 통신시장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통합 1주년을 기점으로 무선데이터 활성화, 유무선 결합상품,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등 전자적 역할을 집중하기 위해 광화문 사옥의 역할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가 입주한 남산그린빌딩에서 1999년 12월 종로 신사옥으로 이전한 SK텔레콤 역시 이동통신 업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본사에는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기반의 ICT 체험



통합LG텔레콤이 오는 7일부터 출근하게 될 남대문로 신사옥 'L타워'.

관 '티움(T.um)'을 운영하는 등 일찌감치 강북 시대를 주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통합 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밀집한 서울 중심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신 3사가 본격적인 강북시대를 맞은 만큼 하반기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

KT, 구글 넥서스원 공개



KT가 애플 아이폰에 이어 구글 넥서스원(Nexus One)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 쟁탈전에 나선다.

KT는 6월 말 출시 예정인 구글 넥서스원을 공개했다. 공개된 넥서스원은 구글과 대만 IT 업체 HTC가 직접 설계

한 제품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OS인 '프로요(Froyo)'가 탑재됐다.

기존 국내에 출시된 넥서스원의 경우 대만 업체의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외형만 가져온 반면 이번 KT가 출시하는 넥서스원은 외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모두 구글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OS '프로요'는 최근 삼성전지에서 아이패드 대항마로 개발 중인 삼성패드(가칭)에 사용되는 최신 버전이다.

배군득 기자 lob13@

이글루시큐리티 코스닥 입성 눈 앞

보안관리 전문기업 이글루시큐리티가 한국 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글루시큐리티는 글로벌 정보보안관리 전문기업으로 목표로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된 업체다.

방화벽과 안티바이러스 제품으로 대표되던 초창기 정보보호 시장에서 통합보안관리(ESM) 분야라는 블루오션을 창출해 국내 ESM 시장

에서 70%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9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근간으로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산업보안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모든 영역의 안전을 아우르는 '융복합 보안관제 솔루션(CSM) LIGER-1'을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 상용화에 성공했다.

배군득 기자 lob13@

포털3사 모바일 웹 경쟁 불 붙었다

올해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 하면서 포털 3사의 경쟁 무대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컴즈가 지난 1일 모바일 웹 서비스에 나서면서 기존 대형 포털 3사가 모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업계 1위업체인 NHN의 네이버 모바일 웹(m.naver.com)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콘형 사용자 환경(UI)이다.

네이버는 기존 웹 페이지와 달리 모바일 웹은 메일, 캘린더, 뉴스, 카페, 블로그, 미투데이,

정도로 유사하게 꾸며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음은 지난 2008년 7월 모바일 웹에 기존의 뉴스, 검색, 한메일, 증권 등의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내용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마이피플을 추가하는 등 23개의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다음은 특히 글자 입력이 불편하고 일반 PC에 비해 액정이 작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초성 검색을 포털 3사 중 최초로 도입했다.

다음은 이날 중 자판 대신 음

켰다.

네이트 모바일 웹(m.nate.com)은 우선 지난해 10월 유선 네이트에서 도입한 시맨틱 검색을 모바일 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맨틱 검색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가 없어 키워드 입력이 불편하고 데이터 송수신이 부담되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더욱 유리하다.

시맨틱 검색의 박스형태 UI도 좁은 화면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됐다.

모바일 웹상에서는 주제어와 상세 정보가 세로로 나열되면 이용자는 오른쪽 필름 버튼을 눌러 주제별 상세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를 닫고 다음 주제어를 살펴볼 수 있다. 랭킹 뉴스와 댓글 코너가 별도로 운영되는 네이트 모바일 웹 뉴스는 100% 실명제로 운영되는 네이트 뉴스를 모바일로 옮겨왔다. 아울러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SK컴즈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바일 웹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촌정보 및 네이트온 알리미, 커넥팅 소식, 미니홈피 업데이트 정보도 제공된다. 이처럼 주요 포털 3사가 모두 모바일 웹 서비스에 나서면서 기존 유선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구도가 모바일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색부문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60%대, 다음이 20%대, 네이트가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

무선네이트로 월드컵 시청한다

SKT, SBS플러스와 계약체결 전 경기 생중계

SK텔레콤은 남아공 월드컵을 무선 네이트를 통해 모바일 실시간 중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최근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자인 SBS인터내셔널로부터 뉴미디어 방송권을 확보한 SBS 플러스와 월드컵 모바일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선 네이트에서는 월드컵 개시일인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대표팀의 경기를 포함한 월드컵 전 경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경기 하이라이트, 베스트 장면, 베스트 플레이어, 조별 하이라이트, 본선 진출 32개국 전력분석

등도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및 동영상으로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T스토어에서 '남아공 월드컵 라이브 중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앱을 설치하면 월드컵 전 경기를 중계하는 무선네이트의 실시간 TV에 접속할 수 있고, 경기일정과 기록실, 각 팀 전력분석, 경기하이라이트 VOD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K텔레콤은 또 내달 12일까지 '길거리 응원도구', '월드컵 뉴스', '인기급상승 축구게임' 등 6종의 애플리케이션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데이터 정액제 미가입자의



경우 실시간 중계를 시청할 경우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SK텔레콤은 월드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고객 중 7명에게 해외로 관광객행권(4명), 삼성 갤럭시S(3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배군득 기자 lob13@



당신의 간은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까?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는데, 사람은 더욱 바빠지는 세상. 이제 건강 관리는 간부터 시작하세요! 우루사대독시콜린산이 함유된 우루사로 언제든지 뭉쳐든 항체 만세! 느껴보세요, 우루사 효과! 건강한 간은 만세를 외칩니다

우루사대독시콜린산 함유

우루사

www.urso.co.kr
소하리당밀 080-550-8308~9



롯데월드 수상한 구조조정 눈총

최대 영업이익 불구 직원 17%나 정리…使측 “절차상 문제 없다”

롯데그룹 계열 호텔롯데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롯데월드가 올 1분기 최근 3년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월드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측이 5월25일까지 실시한 희망퇴직자 접수에 모두 136명이 지원했으며 이달 1일부터 퇴직했다.

희망퇴직자 136명에는 일반직으로 불리는 정규직 직원 6명과 특수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75명이 포함돼 있다. 롯데월드는 현재 정규직 400여명, 비정규직 400여명 등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 직원의 약 17%가 회사를 떠난 것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 1년치 기본급에 10년 이상 근무자 600만원, 10년 이하는 300만원을 지급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가 이번에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한 것은 최근 4년간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가 이유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사측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가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해긴 했지만 매년 적자폭을 크게 줄이고 있고 올 1분기에는 작년 전체 손실의 큰 이익을 냈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07년 510억1100만원, 2008년 141억4400만원, 2009년 56억 3200만원으로 손실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34억63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

은 기간 매출도 480억9900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 가량 늘었다.

또 그동안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것은 2006년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이용자가 줄어든 데다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한 감가상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회사의 경영실패가 원인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작년 3월 30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한 것. 하지만 당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한다는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

이 회사 한 직원은 “회사가 올해 흑자를 낸 것은 그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줄여가면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노력에 동참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장사가

안 돼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일겠지만 올해 들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도 “회사가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2011년이면 김해 위터파크도 개장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도 계획 중이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 목표에 밀려 작년에 포기했던 구조조정을 올해 분위기가 바뀌니까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4년간 경영적자를 기록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와 협의 하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황의신 기자 philla@



명동 상점 금강제화, 세단장 1954년 설립돼 56년 동안 명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금강제화 매장이 옛 건물로 이전, 새롭게 문을 열었다. 랜드로바 매장으로 옮긴 금강제화는 고객들이 수조, 의류, 패션소품 등을 자유로이 체험하고 상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폭을 넓히고 디스플레이 공간을 최적화했다.

‘로가디스’ 거리로 나간다 제일모직, 8월부터 가두점 브랜드 출시

제일모직의 남성정장 ‘로가디스’가 오는 8월부터 가두점 브랜드로 운영된다.

제일모직에 따르면 기존 백화점 유통채널에만 집중했던 남성복 ‘로가디스’는 연내 40개 매장을 오픈, 종합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한다.

가두점은 백화점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는 뒤지지만 수수료·재료비·마케팅·몰류·인거비 등이 저렴해 수익성에서 뛰어 나기 때문에 가두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가디스 가두 사업은 멋진 스타일과 프리미엄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국내 최대의 가두 종합 패션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상품 라인은 고급 정장(Ceremony), 비즈니스 정장(On Time Business)의 정장류를 비롯해 비즈니스 캐주얼(Business Casual), 도심 속 평상복(City Relax)의 캐주얼 패션, 주말의 레저 스포츠복(Weekend Sports)을 아우르는 아웃도어까지 남성복의 전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에 기자 ka@

보험 등재 의약품 퇴출 공포

심평원, 10월 재평가 결과 발표…해당 제약사 매출 타격



최근 정부가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퇴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 효능군인 고혈압치료제에 이어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 3044품목에 대한 중간 연구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효능군 별로는 기타 순환기계용약 279개 성분, 1075품목, 기타 소화기계용약 71개 성분 847품목, 소화성궤양용제 91개 성분 659개 품목, 장질환치료제 104개 성분 261개 품목, 골다공증치료제 54개 성분 207품목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분별로 기타순환기계용약은 6개 성분에서 36품목이 기타소화기계용약은 21개 성분에서 202품목이 삭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우선 기타순환기계용약에서 동아제약 액티젠주를 비롯 부광약품, 휴온스, 드림파마, 경남제약 등이 포함됐다.

기타소화기계용약에서는 무려 202품목이 삭제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대웅제약, 보령제약, SK케미칼, 광동제약, CJ제일제당 등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올해 안에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마무리 되면 품목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최종 결론에서는 일부정부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3개군, 소화성궤양용제와 장질환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중간평가결과 상당수 임상적 유용성이 있거나 결과 미도출 상태다.

보험급여에서 의약품이 삭제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의사들의 처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웬만하면 보험이 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때문에 보험급여에서 삭제되는 의약품은 통상 처방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총 4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이제 겨우 1차에 불과하다”며 “예비평가였던 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약업체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상희 기자 mountja@

월드컵 기간 온라인몰 혜택 2배

할인쿠폰·포인트 증정…16강 진출 이벤트도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각 온라인몰이 적립금 지급, 파격 할인, 포인트 지원 등 실질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월드컵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월드컵 기간에 더 큰 할인 혜택과 경품을 제공해 고객 눈길 잡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관련업체에 따르면 디앤샵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3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160명에게 16% 할인쿠폰을 랜덤 지급하는 ‘We want 16’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패션 의류, 브랜드 의류, 언더웨어 등 디앤샵 패션의류 카테고리에서 10만원 이상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디앤샵 10만원 연간할인권’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 ‘Big 5 card 6개월 무이자’ 제휴할인 혜택

도 제공한다.

인터파크는 축구 골을 넣는 플래쉬 게임에 참여해 ‘골인’을 성공시키면 추첨을 통해 축구영화 ‘맨발의 꿈’ 영화예매권 350장, 매일 2010명에게 10% 할인쿠폰, 축구응원 티셔츠 등을 증정하는 ‘익사이팅 스트라이커’ 이벤트를 6월26일까지 진행한다.

도서부문 한책방 코너에서는 12일 첫 경기 승리기원 이벤트로 12일 승리기원, 1200원 균일가전을 열고 분야별 250여종의 한책방 도서를 최대 91%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한편 첫 경기 승리시에는 구매금액의 50%를 돌려주는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육선에서는 23일까지 ‘스마트한 당신의 직감에 킁다’ 이벤트를 통해 월드컵 경기시 해당 국가의 골수를 예측해 맞추면 육선에서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 경기의 하루 전날인 24시간 동안 응모가



가능하며 경기 종료 후 해당 국가의 골수를 맞춘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60명에게 1600포인트를 증정한다.

롯데닷컴에서는 S-OIL 보너스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기만 하면 3000만원의 10년치 S-OIL 주유권(1등), 삼성 PAVV LED TV(2등), 지펠 마시모주끼 방장고(3등), 안마 의자(4등), 삼성전자 노트북(5등), 하우젠 버블 드림 세탁기(6등), 올림푸스 PEN(7등), S-OIL 3만원 주유상품권(8등) 등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선에 기자 ka@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동법 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발급 안내 (보건복지부 주관)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14과목 이수 시 발급 -

- 고등학교 졸업자 : 총 80학점(이수, 사회복지학 전문학사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총42학점(14과목) 이수,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안내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부
- 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자 : 대학 졸업증명서 5부, 주민등록등본 2부

※ 문의 주시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 정보, 상담해드립니다.
(02) 2679-7773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美 4G 시장 열렸다...6월 시동

모바일 울트라 브로드밴드 기대...실질 속도 논란도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에 4세대(4G) 서비스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에서 6월초 4G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장비는 물론 서비스시장도 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사진인 위키미디어에서는 4G를 모바일 울트라 브로드밴드(기가비트 속도) 접속으로 멀티캐리어 전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이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과 스프린트네스텔은 대표 3G서비스인 EV-DO를 제공하고 있다.

AT&T와 T-모바일은 UMTS/HSDPA를 제공한다. EV-DO란 기존 CDMA 20001X에서 패킷 데이터만 전송하기 위해 진화된 방식으로 북미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HSDPA는 고속하향패킷접속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나 CDMA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3.5세대 이동통신방식이다.

가장 최신 방식은 리비전 A(Rev.A)로 데이터 스피드를 초당 3.1Mbps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UMTS와 HSDPA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GSM 기반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이론상 UMTS/HSDPA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4.4Mbps까지 가능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각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실질 속도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이폰으로 대박을 친 애플이 AT&T의 3G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T-모바일은 42Mbps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HSPA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관심을 끌고 있는 4G서비스를 통해서만 와이맥스(WiMAX)와 LTE 등 두가지 표준을 사용한다.

스프린트는 4G 와이맥스 네트워크를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있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초당 다운로드 속도 128Mbps와 업로드 속도 56Mbps를 낼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와이맥스인 IEEE 802.16m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초당 1Gbps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는 초당 100Mbps의 전송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와이맥스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프린트는 자사의 와이맥스 4G 네트워크를 수개월 안에 뉴욕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버라이즌과 AT&T가 도입하는 LTE 방식은 내년 인프라스트럭처

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LTE 시스템은 이미 유럽과 동아시아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LTE는 초당 10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업로드는 50Mbps까지 가능하다.

차세대 버전인 LTE 어드밴스드 시스템은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4G서비스 도입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첨단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얼리어답터가 아닌 이상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사들은 4G네트워크의 완벽한 구축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존 2G와 3G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새로운 서비스로 갈아타야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주요 통신사들은 4G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엄청난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업체들의 말처럼 4G 서비스가 새로운 모바일 환경을 열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신기

스프린트 4G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일정	6월4일
단 말 기	EVO 4G(HTC)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 2.1
카메라	800만화소
칩	스냅드래곤
화면	4.3인치 터치스크린
슬롯	마이크로SD(32GB 확장가능)
메모리	내장 1GB
가격	199.99달러(2년 약정 69.99달러/월)
(10달러 추가시 프리미엄데이터서비스)	

술인 4G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G 테이프를 먼저 끊는 곳은 스프린트네스텔. 이 회사는 대만 HTC의 EVO를 내세워 6월4일 4G 서비스를 실시했다.

가을에는 버라이즌와이어레스가 3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메트로PCS커뮤니케이션 역시 비슷한 시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4G를 설명하는 말에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용어들이 포함되지만 소비자에게 있어서 4G는 더욱 빠른 속도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전송받아 볼 때 끊기지 않고 볼 수 있으며 데이터를 더욱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4G의 매력에 있는 것이다.



스프린트네스텔이 6월 4G 서비스를 실시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4G 서비스 실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매트 카터 스프린트 4G 사업부 대표는 "4G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미 3G에서 경험했던 것"이라면서 "일반 TV와 고해상도 TV를 볼 때의 차이와 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해상도TV로 갈아타면서 높아진 눈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다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카터 대표는 "3G에서 4G로의 변화는 2G에서 3G로 넘어갈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별로도 소비자의 체감속도

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프린트와 버라이즌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3G에 비해 4G의 속도가 빠르겠지만 AT&T와 T-모바일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문제로 내년까지 체감속도 상승이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컨설팅업체 PRTM의 앤 헤이스 애널리스트는 "이는 업체들이 실질 서비스속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4G 마케팅을 위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는 AT&T의 네트워크는 이미 포화상태다. AT&T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데이터 사용량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는 평가다.

이는 AT&T가 올해를 출시할 계획인 아이폰 4G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차세대 아이폰이 4G 이란만 달고 실제 4G 와이어레스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태성 기자 tsmn@

불붙은 스마트폰 시장 EVO가 간다

획기적 와이맥스 기능...아이폰·블랙베리와 경쟁

세계 모바일 시장에서 인기 불어 한창인 스마트폰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스마트폰 4세대(4G) 경쟁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델은 대만 HTC의 예보(EVO) 4G다.

폴 테일러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최근 기고한 글을 통해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무선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 현재 3G 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4G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HTC의 첫 번째 4G 스마트폰인 예보를 높이 평가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대만의 HTC는 미국 3위 이동통신사 스프린트네스텔과 2년 공급계약을 맺고 이번 주 미국에서 예보 4G를 출시할 예정이다.

예보는 스프린트네스텔의 3G 망에서도 훌륭한 기능을 제공

하지만 클리어와이어의 와이맥스(WiMAX) 기반 4G 속도가 비디오 스트리밍, 화상 회의 시스템 등 모바일 멀티미디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와이맥스의 4G 서비스가 아니라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OS)을 탑재한 스마트폰인 예보는 다른 경쟁사 스마트폰의 장점을 갖춘 훌륭한 터치스크린을 자랑하고 있다.

예보는 와이맥스 기능을 내세워 자사의 기존 스마트폰인 '드رويد인크레더블'과 'HD2' 애플의 '아이폰 3GS' 리서치인 모션(RIM)의 '블랙베리볼드' 등과의 경쟁 대열에 가세했다. 드رويد인크레더블과 마찬가지로 예보 4G는 펄 컴의 스냅드래곤 1GHz 프로세서(CPU)를 탑재했으며 안드로이드 OS의 최신 버전인 2.1을 기반으로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예보 4G는 또 모바일 와이파이(Wi-Fi) 핫스팟처럼 작동해 8개 기기가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4G 서비스 지역에서 랩톱이나 넷북을 이용할 경우 무선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와 데이터 전송 및 수신도 동시에 가능하다.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4.3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을 바탕으로 800x480 픽셀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 HTC의 스마트폰과 같이 스크린 아래에는 가장음메인, 메뉴, 페이지 백업, 검색 등 4개의 네비게이션 터치 버튼이 있다.

매력적인 스크린 외에도 예보 4G는 화상 회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스마트폰 전면과 후면에 카메라가 각각 달려 영상 채팅에도 용이하다. 뒷면에는 8메가픽셀 카메라가 뒷면 플래시 옆에 부착됐으며 앞면에는 1.3메가픽셀 카메라가 장착됐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亞 상용화 박차...中시장 관건

본격 서비스 확대에는 3~4년 걸릴 듯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시아 4G(4세대) 시장의 발전도 가속화하고 있다.

4G는 정지상태에서 1Gbps, 이동 상태에서 100Mbps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양방향 영상통화 등을 모바일폰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꿈의 통신'으로 불린다.

현재 출시된 3G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10분이 상이 걸리지만 4G 이동통신 기술이 이용하면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몇 초면 충분하다.

전세계 이동통신 관련업체는 4G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업체인 파스콘은 오는 6월 선보일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4G를 올해 2400만

대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과 7개월 만에 아이폰 4G를 지난 한해 아이폰 전체 판매량인 2510만대에 육박한 수준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는 지난 3월 미 3대 이동통신 업체인 스프린트네스텔과 손잡고 세계 최초의 4G 모바일폰인 EVO 4G를 선보였다.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중국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총력전도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7억 70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했고 오는 2012년에는 가입자가 10억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세계 2위 통신장비업체인 노키아지멘스는 중국의 4G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중국 내 연구개발(R&D) 인력을 현재의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키아지멘스는 또 중국이 자체



개발중인 4G 이동통신 기술인 '시분할 롱텀에볼루션(TD-LTE)' 기술규격에 맞는 새로운 조립라인을 상하이에 구축할 예정이다.

애플은 아이폰 4G 출시를 통해 중국에서의 아이폰의 인기를 4G시 장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아이폰은 지난달 중국에서 72만 5358대가 판매됐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은 엑스포 개막에 발맞춰 상하이 엑스포 단지를 대상으로 4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NTT도코모는 오는 2014년까지 4G서비스에 총 3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배준호 기자 baehj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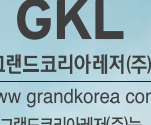
KAB-100-104



업계 최초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획득



2010~2012년 한국 방문의 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
www.grandkorea.com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린레저산업의 중심 GKL이

대한민국의 푸른 내일을 열어갑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관광레저산업 그 중심에 GKL이 있습니다.

외화기대를 94%의 고부가 서비스 카지노산업에 이끌고 있는 GKL.

GKL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창의적인 서비스로 외화획득과 사회공헌에 힘쓰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레저기업이 되겠습니다.

세븐럭의 경제적 효과는?

자동차 5만대/반도체 4억개/LCD TV 5백만대의 수출효과
외화기대율이 94%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1만5천명의 고용효과와 1달러당 2.74달러의 높은 생산유발효과



자동차 5만대



반도체 4억개



LCD TV 5백만대



Seven Luck CASINO

서울강남점 | 밀레니엄서울힐튼점 | 부산롯데점

‘자살공장’ 된 팍스콘 공장

13명 투신 中 ‘들썩’ …노무환경 대변혁 전망

중국의 노무환경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팍스콘 중국공장에서 연쇄자살사고가 발생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임금체제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세계 최대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대만 팍스콘사의 중국 선전공장에서 일어난 연쇄자살사고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팍스콘사의 중국 선전 통화단지에서는 올해들어 13명이 투신자살해 그 중 10명이 사망했고 특히 테리 고우 팍스콘사 회장이 공개사과를 하는 와중에도 2명이 자살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중국 광둥성 왕양 당서기가 “팍스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자살에 대해 지방정부와 당 및 팍스콘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왕양 서기는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선전공장에서 일어난 연쇄자살사고에 중국정부뿐 아니라 애플과 휴렛패커드(HP) 등 팍스콘사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25일 또 1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직후 다국적기업들은 일제히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선전시에서 열린 자살사고 관련 컨퍼런스에서 왕 서기는 “근무환경 개선과 사용자와 노동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기업의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인간 중심의 경제발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팍스콘의 자살사고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팍스콘사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인 월 900위안에 불과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잔업에 대한 직간접적 강요를 받고 있으며 군대를 방불케 하는 회사의 엄격한 규율이 근로자의 불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자들은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이 젊은층에서 종종 나타나는 ‘베르테르 효과’와 비슷하다고 봤다. 같은 또래 동료의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팍스콘사 공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80년대와 90년대 태어난 젊은 농민공들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젊은 농민공들의 소외감이 커진 것도 원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젊은 공장 근로자들은 인터넷이

나 TV를 통해 같은 또래 젊은이들의 화려한 소비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힘과 외로운 생활에 대한 고독감과 소외감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의 리구웨이 심리학 교수는 “중국의 옛날 세대는 고된 작업에 익숙하고 목표도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다”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선전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분출할 통로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팍스콘 공장의 연쇄자살사고는 중국의 노무관리가 대량생산 시대의 효율성 증시형에서 벗어나 근로자 각자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섬세하게 살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형 노무관리로 탈바꿈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장제계의 압력이 심해지면서 팍스콘은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팍스콘은 앞서 지난달 30일 임금 20% 인상을 발표했으나 2일 다시 임금인상률을 30%로 상향조정했다.

에드먼드 덩 팍스콘사 대변인은 “임금 30% 인상은 내부토론에 따른 것”이라며 “모두가 새로운 임금인상이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팍스콘 중국 선전공장에서 연쇄자살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했다.

중국정부는 최근 소득격차가 더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중국 내륙의 농촌경제도 최근 발전하고 있어 동부연안의 공장지역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이 감소해 현지 제조업체들의 인건비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전지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750위안 수준에서 현재 900위안으로 올랐다.

최근 임금인상 움직임에 다른 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헛과 KFC로 유명한 옴브랜드가 중국 북동부 도시에 있는 KFC매장 점원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노트북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컴팩 일렉트로닉스의 레이 천 최고경영자(CEO)는 “지

韓기업도 노무환경 변화에 비상

부품업체와 파트너등 영향 불가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임금상승, 파업 및 연쇄자살 등 중국의 노무환경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일본 혼다차가 파업으로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베이징 현대자동차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베이징현대차에 철재 빔 및 범퍼를 공급하는 성우하이텍의 베이징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8~29일 파업을 일으켰다.

성우하이텍 파업으로 베이징현대차 완성차 조립라인 생산이 한때 전면중단되고 다른 협력업체의 라인도 가동에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하이텍은 노사협상에서 15% 임금인상안에 합의해 일단 파업이 끝났지만 최근 중국의 노사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어 다른 한국기업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 혼다차 현지공장의 파업에 중국정부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하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태도변화가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중국정부가 저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혼다차의 파업에 개입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47을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면 불균형한 소득분배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중국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0~90년대에 출생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중국 노무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1가정1자녀’ 정책하에 태어났으며 경제발전과 미디어의 발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로 이전 세대보다 자유롭고 소비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근로자들은 또래 젊은이들에 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소득도 적어 TV나 잡지 등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는 화려한 소비활동도 할 수 없다.

배준호 기자 baeh94@

혼다 파업…저임금구조 변화 시발점

1900여명 노동자 파업…24% 임금인상 이끌어



혼다 중국 현지부품공장 파업은 중국내 최대 파업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혼다차의 중국 현지부품공장 파업으로 중국내 노사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주간 지속된 혼다차의 파업에는 19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해 중국내 최대 파업으로 기록됐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생산이 파업으로 완전히 중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혼다차 파업으로 중국내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 변화가 올 조짐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경찰을 투입하거나 노사 양측을 압박해 파업을 1~2일안에 끝내도록 강요해왔으나 혼다차 파업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었다. 현지언론들이 혼다차 파업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다.

혼다차 현지부품공장 근로자들은 월 평균 1000~1500위안인 임금을 2000~2500위안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정규직은 355위안씩, 비정규직은 477위안씩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협상이 난항에 부딪혔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혼다차가 노사협상에서 임금을 24%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의 조직화된 노동운동과 저임금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임금인상 이외에 일본 주재원과 차별 및 엄격한 임금관리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현지언론은 혼다차의 광둥성 푸산시의 변속기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월 평균 1000위안인 반면 일본인 주재원은 5만위안에 달해 임금격차가 50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혼다차 공장 근로자들은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데 최고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산공장의 한 근로자는 “임금 갈등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면서 “각종 수당을 포함한 나의 월급은 평균 1300위안이며 2년이 넘도록 임금인상폭이 100위안에 못 미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최고 인상폭인 월 300위안의 임금인상을 얻기 위해서는 평가등급 ‘A’를 2년 연속 받아야 한다”며 “근로자 중 A평점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노동조합적인 ‘공회’의 역할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변화할 전망이다. 공회는 그 동안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노동자 관리 문제에만 치중했으나 혼다차의 파업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향상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정부 ‘저임금 정책’ 탈피한다

팍스콘 사태 도화선…최저임금 인상 행진

중국정부는 빠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금인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정책의 변화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혼다차의 현지 공장 파업에 중국정부는 이전과 달리 개입을 꺼리면서 저임금구조 개선을 간접적으로 압박했고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소극적이던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일찍부터 예견돼 왔다.

개혁·개방을 한창 추진하던 지난 1994년에 중국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고용제를 도입하고 퇴직금 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경제발전 중 심정책에서 서서히 분배평등 정책으로 그 초점을 옮기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이른바 ‘선부론(先富論,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돼라)’에서 ‘균부론(均富論, 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지난 2003년 취임하자마자 ‘조화로운 사회’를 통치이념으로 내걸었고 노동자 권익향상, 노동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통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8년 신노동법을 시행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신노동법은 장기고용 보장 및 퇴직금 인상과 노동조합 권한 대폭 확대 등이 핵심내용이다.

최저임금 표준도 올해부터 올리고 있다. 이미 상하이와 광둥성 등 중국 11개 성·시·자치구가 최저임금 표준을 10% 이상 인상했다. 그 중 산둥성(21.2%), 광둥성(21.1%), 후베이시(28.5%) 등 6개 지역은 임금인상률이 20%를 넘어섰다. 나머지 20개지역도 올해 안에 최저임금 표준을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콘사의 연쇄자살사고 및 하중민이 불만이 촉발해 벌어진 ‘무차별 학교 칼부림’ 사건으로 빈부갈등 및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94@

탄생10주년

총치걱정 없이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오 늘 전 주 대한민국

100% 자작나무 핀란드산 자일리톨

롯데 자일리톨

M/V 수위 아슬아슬 “도 넘었다”

(뮤직비디오)

티아라 ‘보핍보핍’, 브야걸 ‘싸인’ 등 선정성 논란…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최근 여성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기 걸그룹 티아라를 비롯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이하 브야걸), 이정현, 신인가수 속희 등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정도로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각 방송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뮤직비디오들이 청소년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119개의 뮤직비디오를 심의한 결과 걸그룹 티아라의 ‘보핍보핍(Bo Peep Bo Peep)’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남녀간의 과도한 스킨십과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등 선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이날 방통심의위는 브야걸의 ‘싸인’과 빅키즈의 ‘괜찮아’, 휘의 ‘늦은 후회’, 토파즈의 ‘누나 못 만나’ 등 4편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판정을 내렸다.

브야걸의 ‘싸인’은 폭행 및 살인 장면이 다뤄져 유해판정을 받았고 토파즈의 ‘누나 못 만나’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장면이 나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우 겸 모델 마르코와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의 과격 베드신으로 화제를 모은 신인가수 속희의 데뷔곡 ‘One love’ 뮤직비디오 티저가 최근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1일 오전 엠넷 닷컴을 비롯한 고풍TV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에서 남녀 주인공인 마르코와 이희진의 베드신 장면이 1~2초간 스치듯 삽입돼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가수들이 베드신을 암시하거나 연상되는 장면을 뮤직비디오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과격적인 베드신을 적나라하게 다룬 작품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발매와 동시에 풀버전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19세 이상 관람가 버전과 청소년 관람가 버전 두 편으로 제작됐다. 이는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 받기 전 등급을 분류해 뮤직비디오가 전파를 타는 것과 가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가요계 주 타깃 층은 10대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음반을 사고 듣고 보는 사회적 성향으로 볼 때 방송 부적



격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면 음반제작사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성인등급으로 분류해 심야에 방송을 한다 해도 온라인상에서 다운을 받거나 TV시청 등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서 지난달 컴백한 가수 이정

현의 신곡 뮤직비디오도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녀의 소속사는 “이정현의 정규 7집 앨범 ‘수상한 남자’의 뮤직비디오 버전2가 방송국 심의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뮤직비디오는 수정을 거쳐 전파를 타게 됐다.

박태진 기자 tjippo@

아이돌 스타 건강에 적신호 켜졌다

씨엔블루 활동 일시중단, 포미닛 부상 투혼



미닛 멤버 현아와 허가운도 부상 소식을 전했다. 현아는 최근 차문에 새끼손가락이 끼는 부상을 당했으며 허가운은 연습 도중 눈을 의상에 찔려 안대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포미닛은 멤버들의 연이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강행하고 있어 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조승예기자 sysy@

2PM, 포미닛, 씨엔블루, 비스트 등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잇따라 부상 및 질병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이들은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뻘뻘한 일정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멤버 준수의 무릎 부상으로 5인조로 무대에 올랐던 2PM은 막내 찬성까지 장염 판정을 받으면서 급하게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PM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찬성이 5월 23일 SBS ‘인기가요’ 사전 녹화를 마친 후 복통을 호소해 검사한 결과 장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찬성은 지난달 31일 퇴원했으며 6월초부터 시작되는 원더걸스의 미국 투어 공연 오픈닝 무대에 서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최근 컴백한 씨엔블루는 리더 정용화가 독감과 성대결절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씨엔블루 측은 지난달 25일로 잡혀있던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26일 케이블채널 Mnet 음악프로그램인 ‘엠 카운트다운’ 출연을 취소했다. 앞서 정용화는 성대결절로 컴백 일정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상태가 호전돼 계획대로 컴백했다. 하지만 무리한 스케줄이 이어지면서 병세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그들 비스트의 멤버 윤종현은 최근 경기도 죽전에서 가진 행사에서 열구리 부상을 당해 서울 모 한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또 신곡 ‘하(huh!)’를 발표하고 활동 중인 여성그룹 포

일밤 새 코너 ‘뜨거운 형제들’ 폭발적 반응

‘아바타 소개팅’ 폭소 만발, 시청자 호평 이어져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코너 ‘뜨거운 형제들’이 시청자들에게 웃음폭탄을 선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뜨거운 형제들’은 소개팅에 나선 네 명의 싱글남들이 네 명의 품질남들에게 조종을 받아 행동하는 ‘아바타 소개팅’ 편을 통해 익숙한 포맷 속에서 신선한 재미를 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첫 방송 이후 8주만에 돌아온 ‘뜨거운 형제들’은 아바타 개념을 도입해 탁재훈·박명수·

김구라 등 예능 고수들의 명령을 이기광·박휘순·사이먼디 등 예능 초보들이 수행하면서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아바타소개팅’은 4명의 유부남 멤버들이 소개팅에 나선 4명의 싱글남들에게 지시를 내려 행동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3일 방송에서는 소개팅에서 탁재훈, 김구라, 박명수, 한상진 등 4명의 멤버들이 내린 황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이기광, 노유민, 박휘순, 사이먼디의 모습이 방송됐다.

탁재훈·박명수·김구라·한상진의 거침없고 솔직한 입담과 이들의 황당한 명령을 수행하는 사이먼디·이기광·박휘순·노유민이 당황스러워 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웃음을 두 배로 배가시켰다. 예능 고수들과 신인들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기존 예능에서 익숙했던 캐릭터들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킨 ‘뜨거운 형제들’은 아직 시청률 면에 있어서는 부진하지만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멤버들의 조합이 신선했고 아바타라는 소재도 흥미로웠다’,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있다. 보면서 빵빵 터졌다’, ‘오랜만에 일밤을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다. 대박 예감’ 등 호평이 주를 이뤘다.

조승예기자 sysy@

아이비 생애 첫 뮤지컬 배우 도전

내달 9일 개막하는 ‘키스 미 케이트’ 출연

가수 아이비가 ‘키스 미 케이트(Kiss me, Kate)’를 통해 생애 첫 뮤지컬 연기에 도전한다. 아이비는 오는 7월9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에서 로아레인 역을 맡았다.

그녀가 맡은 로아레인은 극중 운순하고 여성스러운 말쑥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이 뮤지컬은 셰익스피어의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창작한 뮤지컬

로 이혼한 배우 부부가 ‘말괄량이 길들이기’ 공연에 함께 출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 뮤지컬 제작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비를 지켜보면서 꼭 한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 가수라고 생각했다”며 “비양카 역은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뮤지컬에 대한 열정과 끼를 확실하게 선보일 수 있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코요태 2인조 재편성 미니앨범 발표



혼성그룹 코요태가 2인조로 재편성돼 미니음반 ‘코요태 어글리(Koyote Ugly)’를 10일 발표한다.

코요태의 소속사인 PK미디어는 지난 1일 여성 멤버 신지와 재대 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 김종민 등 두 멤버로 새 앨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지와 김종민이 호흡을 맞추기는 2006년 9집 이후 4년 만이다.

나머지 한 멤버인 뽀카는 지난 1월 뇌수막종 수술을 받아 건강상의 문제로 음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번 음반의 재킷 사진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음반에는 유명 작곡가 김세진과 박근태, 주영훈 등이 참여했으며 타이틀곡 ‘리턴’ 등 코요태 스타일의 신곡 5곡이 수록됐다.

박태진 기자 tjippo@

2PM 탈퇴한 재범 촬영차 11일 귀국

남성그룹 2PM에서 탈퇴한 재범이 영화 ‘하이프네이션’의 출연을 위해 오는 1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연에게 관계자는 “재범이 10일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일정이 생기면서 귀국일정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범은 지난달 말 미국의 DMW와 현지 매니저먼트 계약을 맺으며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조승예기자 sysy@



비, ‘MTV 무비 어워즈’ 공식 초청…수상 유력

7일 오전 국내 최초 MMA 실시간 생중계

가수 겸 연기자 비의 ‘2010 MTV 무비 어워즈’(MTV Movie Awards, 이하 MMA) 수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비의 소속사 제이플렉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비가 6일 미국 LA의 김

슨 앰피씨어터(Gibson Amphitheatre)에서 열린 MMA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는 이번 MMA 시상식에서 영화 ‘닌자 어쌔신’으로 ‘최고의 터프 스타’(Biggest Badass Star)부문 후보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비가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을 받은 만큼 수상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19회 MTV 영화 시상식 ‘2010 MTV 무비 어워즈’는 7일(한국시각)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생중계된다.

조승예기자 sysy@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

George Balanchine's
THE NUTCRACKER™

호두까기 인형

국내 최초 조지 발란신 안무의 호두까기 인형을 만날 기회
역대 호두까기 인형 중 가장 화려한 무대
1차 티켓 오픈!

OREGON BALLET THEATRE
CHRISTOPHER STOWELL / ARTISTIC DIRECTOR

2010. 8. 15 SUN ~ 2010. 8. 22 SUN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일정: 8/15(일), 8/18(수), 8/21(토)-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2회공연 | 8/17(화)-오후 7시 | 8/19(목), 8/20(금)-오후 7시 30분 | 8/22(일)-오후 2시(월요일 공연없음) 공연문의: 1544-1681

티켓: VIP 120,000 / R 100,000 / S 70,000 / A 50,000 / B 20,000 예매: SAC Ticket 02-580-1300 AUCTION 티켓 1566-1369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주최: Promo Factory 주관: Oregon Ballet Theatre 후원: 한국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www.thenutcracker.co.kr

악!!!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이 있다!!!
클럽뮤지컬파티
"Totally Rad!"
New York Times
가장 재미있는 클럽 파티

올 이상 모일 때! Great for Groups! 특별한 날에!
Bachelorette Parties, Birthdays, Girls Night Out and More!

전화주세요!
☎ 1544-1681 놀라운일이 벌어집니다~! www.awesomeprom.co.kr

이태원 KINGCLUB the Lounge 2010. May. 22(Sat) - Open Run: 매주 토요일 PM 7:30

티켓 30,000원 문의: 1544-1681

클릭! AUCTION 티켓 1566-1369 · 인터파크 티켓 1588-1555 · 주: SHOWMAX · 후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서울예술교육지원재단

Off-Broadway Club party arrives in Seoul!

베이직하우스, 中시장 개척해 재도약 한다

BASIC HOUSE

지난 2000년 12월 설립된 베이직하우스가 창립 10년 만에 중국 의류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업체들의 국내 시장 성장 한계를 뛰어넘는 해결책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여 왔으나 눈에 띄는 결과를 낳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중국에서의 유통망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이직하우스는 2,3선 매장으로의 진출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선 매장에도 진출해 중국 내에서 국내의류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 진출 성공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상장 업체로 성장했다.

베이직하우스는 지난 2009년 런칭 이후 해마다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 설립 5년만인 2005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최단기간 매출 1000억 돌파, 최단기간 150개 매장 확보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4년 블루케주얼 매출 1위로 등극하고, 중국에 첫 1호점을 개설했다. 상장 이후인 2006년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쿠웨이트에도 진출하며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2007년 ‘베이직하우스’ 매출이 전년 대비 14.7% 감소한데 이어 200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2007년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마인드 브릿지’마저도 매출이 역전장했다.

특히 ‘베이직하우스’의 경우 비효율 매장 정리를 통한 매장당 효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에도 불구하고 베이직한 캐주얼 의류보다는 디자인적 감성이 가미된 캐주얼 의류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이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인드 브릿지’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브랜드의 정체기가 다다른 것은 ‘마인드브릿지’가 초창기 시장에 진입했을 때와는 달리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복종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많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해외 중저가 캐주얼 국내 진출은 위협 기존에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 진출을 했던 것에 비해, ‘갭’, ‘자라’, ‘유니클로’와 같은 글로벌한 브랜드력을

갖춘 중저가의 캐주얼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가 캐주얼 브랜드들이 위협을 받은 것이다.

특히 부진한 의류소비 심리 가운데서도 해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도, ‘저가’보다는 감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의류소비 패턴으로 인해 저가 베이직 캐주얼 브랜드의 입지는 좁아졌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캐주얼브랜드인 ‘BASIC HOUSE’는 2000년 9월 1호점 오픈 이후 2010년 3월말 현재 114개점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주얼 브랜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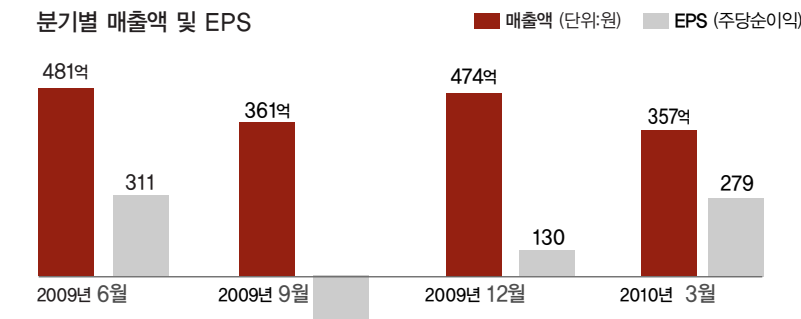
‘MIND BRIDGE’는 당사의 제2브랜드로 2003년 8월 1호점 오픈 이후 2010년 3월말 현재 81개점을 운영 중인 중국인 캐주얼 브랜드이며 2007년 2월 남성 토털 코디네이션 브랜드 ‘THE CLASS’를 런칭해 2010년 3월말 현재 72개점을 운영



비방으로 기존고객의 가치를 개선하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규고객층을 발굴함으로써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한편,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진출을 더욱 가속화해 해외매장을 확충하고, 홀 세일(Whole-Sale) 수출영업에 강화하는 글로벌 전략은 두 브랜드 공통의 판매전략이라 할 수 있다.

VOLL은 30대 기혼여성성을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시장의 소비패턴을 고려해 할인점을 통한 유통망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가두점을 개발



평균 약 86%의 높은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베이직하우스는 2,3선 매장으로의 진출 성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1선 매장에도 진출해 중국 내에서 국내 의류업체 중 비상장업체인 이랜드 뒤를 이어 중국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2010년 베이직하우스는 약 226개의 매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10년 기존 4개의 브랜드에서만 약 200개의 매장 확대가 전망된다.

중국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0.4% 성장했는데 이는 2009년 1분기 중국 매출액 성장률이 분기 중 가장 높은 42.9%를 기록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고무적이다.

1분기 이후 매장 수 확대는 지속돼 4월 말 기준으로도 매장수는 총 523개로 3월 말 대비 약 20개 확대



제 중국 법인의 매출 증가율은 40.4%에 달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성장세는 매우 놀랍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중국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7.5%(지난해 1분기 25.2%)를 기록, 수익성이 개선됐다. 대신증권 정연우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중국에서의 성장스토리를 감안할 때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며 “주가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국내 부문 실적 부진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증권 유정현 연구원은 “2분

기부터 본격적인 봄 옷 판매 증가로 내수 부문의 실적이 턱여라운드(turnaround)할 것”이라며 “제 2의 이랜드로서 베이직하우스의 중국 성장 모멘텀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투자매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토러스투자증권 박수민 연구원은 “최근 시장 조정에도 따라 주가가 고점 대비 약 10%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중국 모멘텀과 앞으로 개선될 국내 영업 상황을 고려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영희 기자 chaosbul@

2000년 이후 해마다 매출 3배 증가 추세 주가·고점대비 10% 조정…추가상승 충분 中 법인 영업이익률 27%…실적 1분기 바닥

중이다. 이 4개의 브랜드는 런칭 시기 및 성장의 역사가 다른 관계로 각각 상이한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BASIC HOUSE와 MIND BRIDGE는 각각 런칭 11년차, 8년차의 성숙기에 접어든 브랜드로 매장수 확장을 통한 매출증대 전략보다는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

THE CLASS는 2007년 2월 런칭해 중심상권에 집중하여 가두점 및 직영점 위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갔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7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04년 ‘베이직하우스’ 브랜드(여성복)로 중국 시장에 첫 진출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



애널리스트가 본 베이직하우스

나은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중저가 캐주얼시장 포지셔닝 성공 목표주가 1만 1500원 ‘매수’ 의견



베이직하우스는 Basic House, Mind Bridge 등 4개 브랜드를 보유한 중저가 캐주얼 전문업체이다. 2009년 기준 매출액 1730억원과 영업이익 38억원, 순이익 89억원을 시현했다. 국내 시장에서 중저가 캐주얼 시장 경쟁 심화와 해외 소싱원가 부담으로 인해 국내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사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보다도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에 기인한다.

중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은 2004년부터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연간 의류소비 규모는 13만원 수준에 불과해 향후 소득 성장과 함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직하우스는 현재 중국 시장에 Basic House, Mind Bridge, I'm David, Voll 네개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가을에 Basic House Kid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중·저가 캐주얼 시장에 포지셔닝한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백화점 유통망을 공략하고 있다.

고가 포지셔닝에 성공하여 수익성도 높아 영업이익률 기준 25%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자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2006년 120억원, 23억원에서 급증해 2009년 매출액은 1203억원, 순이익 197억원에 달했다.

중국 내 매장수는 국내 매장수를 초과한 5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급변 말까지 700개 매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긍정적인 점은 순차적인 일련의 브랜드 출시에 성공해 기존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장 확대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기준점 매출 증가율 15.3%에서 2009년 9.6%로 둔화됐으나 1~2월 재차 24%로 확대되어 긍정적이다. 주력 cash cow인 여성 고가 정장 및 캐주얼 베이직하우스의 기준점 매출 증가율도 2009년 7.6%에서 2010년 20%대로 확

대되었고 중고가 남성 정장 및 캐주얼 Mind Bridge, I'm David 기준점 매출이 2009년 16%, 28%에서 40% 증가세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복 부문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소비 호조로 매출 증가가 가속화, 동사가 계획하는 매장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이다.

2010년 중국 법인 위안화 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원화 기준 지분법 이익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26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직하우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목표주가 1만1500원을 제시한다.

목표주가 1만1000원은 2010년 EPS 1243원에 목표 PER 9.3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중국 자회사 가치와 국내 영업 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했는데 가치 산정 시 국내 영업 부문은 낮은 이익 가시성을 고려하여 30% 할인했고 중국 법인 가치 산정 시에는 우리 Universe 평균을 적용했다.

1888년 런던, 그뻐 사랑이 있었다

Jack the Ripper

잭 더 리퍼

1차 티켓오픈 6월 8일 (화)

2010.7.22~8.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musical.co.kr | www.jacktheripper.co.kr

1차 조기 예매 BIG 이벤트 !!!

조기 예매 이벤트 기간 6/8~6/14동안 티켓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40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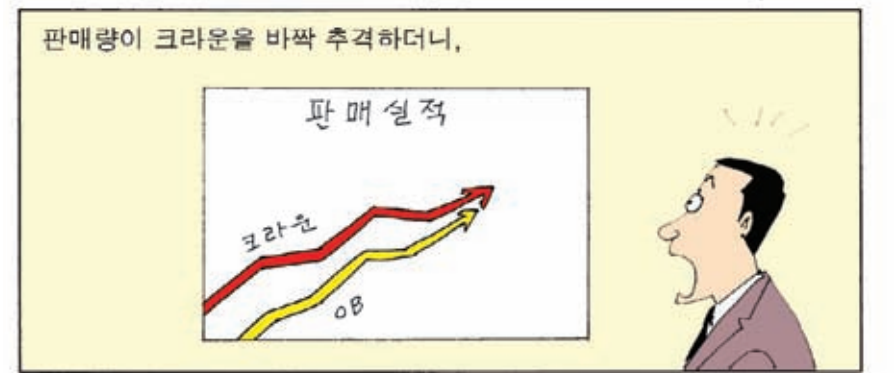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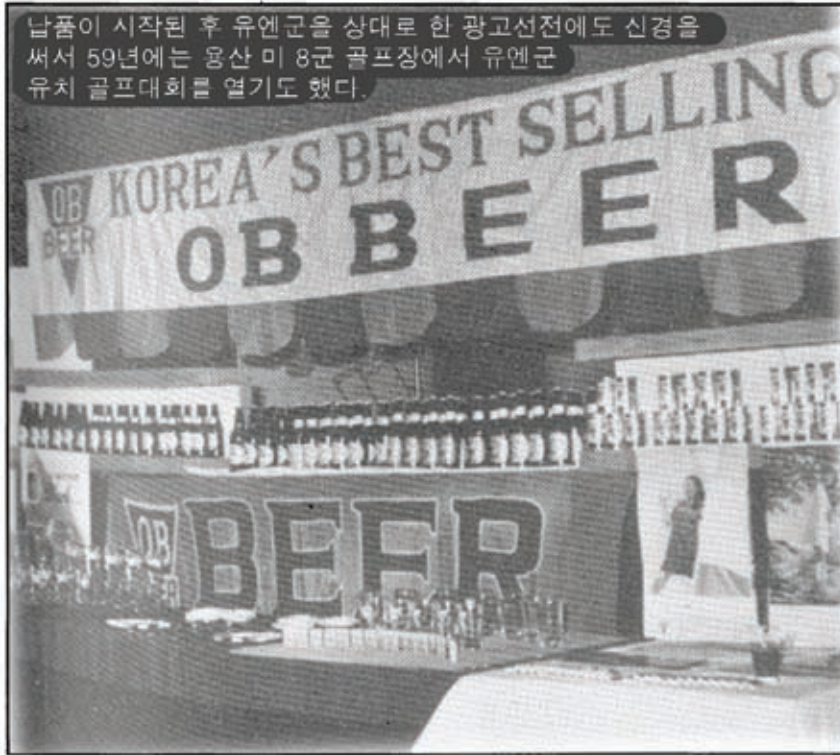
화이팅! 코리아 창업주에게 배운다



기업가 정신의 실천적 선각자

연강 박두병 <제 15화 경쟁사를 누르다> 글·만화 유명수

“우리는 하나의 단계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생성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만 안주해서는 적응력을 잃어버린다. 항상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만이 안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연강 박두병 회장이 자주 인용한 헤르만 헤세의 말)



미래경제 선도하는 바른 뉴스 경제신문 이투데이

이투데이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투데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과 투자의 파트너 이투데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이투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총수들의 寸鐵같은 ‘메시지 경영’

대기업 총수들의 ‘메시지 경영’이 재계의 주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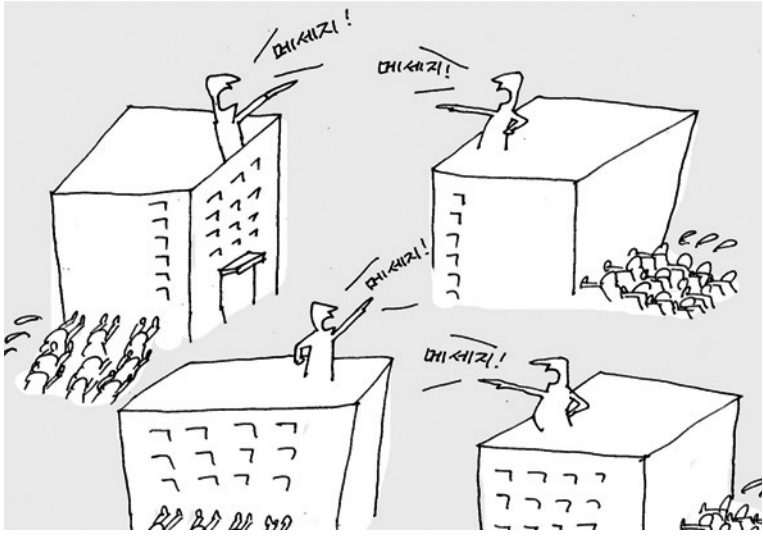
주요 기업의 1인자가 짧은 말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 경영은 해당 기업의 이미지나 핵심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오너의 대외적인 존재감도 부각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총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곧바로 대규모 투자 등으로 구체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메시지 경영’은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던진 ‘위기 메시지’를 계기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삼성그룹의 신사업 사업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경영에 복귀하면서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이진희 “과감하게 투자해서 기회를 선점해야”
정몽구 “품질은 자존심이자 기업의 존재이유”

모른다”고 했던 위기여식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의 일성(一聲)은 곧바로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이어졌다.
2020년까지 친환경, 건강증진

관련 신사업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올해 반도체와 LCD, 연구개발 분야에 26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진희 삼성회장 올해 배당금 874억원 1위
재벌닷컴 조사, 1억원 이상 970명…2위는 375억의 정몽구 회장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주식 보유로 올해 지급받는 배당금이 역대 최고액인 8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매출 500억원 이상의 상장사와 비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2009 회계연도 배당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을 기록한 배당부자는 모두 970명이었다.

이 중 100억원이 넘는 거액 배당부자 15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의 배당금 수령자는 209명.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상장사에서 866억9000만원, 삼성SDS와 삼성종합화학 등 비상장사

에서 7억1000만원 등 총 874억원에 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상장사에서 292억1000만원, 비상장사에서 83억6000만원 등 375억7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 해는 전년보다 132.6% 늘어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상장사에서 333억원, 현대엘코 등 비상장사에서 42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아 총 37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현대중공업에서 287억4000만원을 받아 3위였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상장사 184억7000만원, 비상장사 3억4000만원 등 188억1000만원으로 4

위,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상장사 89억5000만원, 비상장사 96억7000만원 등 186억2000만원으로 5위였다.

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pital자산운용으로부터 163억원을 받게 돼 전체 순위에서 6위에 올랐다.

이어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상장사와 비상장사 배당금을 합쳐 136억6000만원, 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이 133억1000만원, 김상현 동서 회장이 114억3000만원, 구본능 회성그룹 회장이 112억9000만원으로 뒤따랐다.

조남호 기자 spdran@

“동남아·중동 등지서 M&A 적극 나설 터”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의 '1등 기업의 꿈'

“석유화학업계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곳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현재 직원들에게 석유화학업계의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범식(62·사진) 호남석유화학 사장의 말이다. 호남석유화학을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호남석화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실패한 이후에도 풍부한 자금으로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는 “(M&A를 위해)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보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석유화학사업 하기에 여건이 좋아 보인다”면서 “기회가 되면 일본도 괜찮다고 본다”고 강조해 M&A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범식 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

과를 졸업하고 1971년 한국종합화학에 입사했다. 이후 호남석화 부사장, 현대석유화학 사장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호남석화 사장을 역임해왔다. 30여년간 석유화학을 경험해 온 자신이 있는 것이다.

자금면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 호남석화는 현재 1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정 사장은 “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다 부채비율이 50%인 점을 감안, 부채비율을 100% 정도로 끌어올린다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母) 그룹인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도 크다. 롯데그룹은 주력 화학계열사인 호남석화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케미칼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M&A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는 국내 최대 NCC 업체인 여

천NCC 인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엔 금호석유화학 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는 호남석화는 어려웠던 시기에 과감한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LG화학과의 합병으로 현대석유화학(현 롯데대산유화)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2004년에는 케미칼을 인수했으며 최근엔 롯데대산유화를 합병한 바 있다.

그 결과, 호남석화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462억원으로 전년대비 60.4% 늘어났으며 종전 최대치였던 작년 2분기의 2249억원을 웃돌았다. 매출도 전년동기보다 46.1% 늘어난 1조8034억원의 경영실적을 거뒀다.

안경주 기자 ahnkj@



말말말

▲오세훈(서울시장 당선자) = ‘자살성 패배했다’(3일 당선식 확정된 후 소감문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많이 낙선한데 책임감을 느낀다)

▲화요비(가수) = ‘거짓말하기 힘들었다’(3일 연인 슬리피와의 결별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주 슬리피에 관한 이야기 나와 더이상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토야마 유키오(일본 전 총리) = ‘이제는 총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트위터를 할 생각’(2일 총리직 사퇴를 표명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계속 많은 사람들과 트위터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기자 ijoy0403@

엘 고어 전 부통령 파격

미국 전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62)와 그의 아내 티퍼 고어(62)가 파격했다.

미국 연예주간지 US매거진은 엘 고어 부부가 결혼생활 4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1970년 화학을 배웠고 슬하에는 4명의 자녀가 있다.

고어는 “상호간에 합의를 봤으며 둘다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발표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두 사람과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기를 요청한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만 말했다.

강기령 경남 총괄 부사장



강기령 전 현대건설 전무가 경남기업 플랜트사업 총괄 부사장에 선임됐다.
강기령 부사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기계전공)을 졸업하고 지난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이란 사우스와 가스개발공사, 리비아 멜리타 가스공사 현장소장, 플랜트본부 부본부장(전무) 등을 거치는 등 31년 동안 플랜트 현장과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랏사이마세”…남대문상인은 ‘열공中’

일본어 공부에 폭 빠진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가 지난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남대문 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총 25강좌에 걸쳐 실시하는 기초일본어 회화 무료교육이 남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중구상공회측은 “40여명차리 강좌개설에 120여명이 줄을 서는 등 일본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강은 못해도 교재만이라도 받

아가겠다는 상인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교재를 수백부 추가 인쇄 주문을 넣어야 할 판”이라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교육은 이해숙 강남과고대학원 강사가 담당하며 실용회화를 익히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식으로 진행된다.

상공회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시장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용 서울상의 중구상공회

회장은 “남대문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외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어 교육은 필수”라며 “앞으로 중급, 고급 등 단계별 심화 교육과정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공회는 하루 평균 5000여명에 달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남대문시장에 둘러 인사, 김, 김치 등 식품과 가족제품, 가방 등을 쇼핑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홍수 기자 shs@

부시 “이제 페이스북이나 할까”

개설하자마자 2만명 몰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미국판 ‘싸이월드’인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이 유명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인 페이스북에 계정을 개설한 지 몇 시간 만에 2만명이 넘는 이용자들

의 환영을 받았다며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부시의 포스트에는 부시가 퇴임 후 20개주와 8개국을 방문하고 65차례 연설했다면서 부시의 근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부시가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클린턴 부시 아이티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인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 초고를 마무리 지었다”고 최근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로 ‘클린턴 부시

아이티 기금’과 ‘바바라 부시 재단’을 꼽았다고 BBC는 전했다.

이날 부시 전 대통령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에도 5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등록하면서 부시에 대한 네티즌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계정을 연 적이 없고 트위터 이용계획도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한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개월 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 예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자신의 트위터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열심히 벌어 절반은 억울한 세금으로...

워렌 버핏이 한국인이었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이신규 지음 | 344쪽 | 15,000원

《조선일보》에 정기 기고 되었던 합법적인 절세 컬렉션

대한민국 세법의 맹점 완전 분석
평범한 부자들의 절세 아이디어 300

일반 독자들에게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지침서가 되고, 금융권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객들의 궁금증과 해결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매일경제〉 심윤희 차장

워렌도 깜짝 놀란

이신규 세무사의  스마트 택스

스마트 TAX
SMART TAX
SMART TAX
SMART TAX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확인하세요.

Tel 02-322-6144/ Fax 02-325-6143/ www.muhan-book.co.kr
참신한 작가의 글을 기다립니다 muhanbook7@naver.com



시댁에 가면 어머니 편



모임에선 친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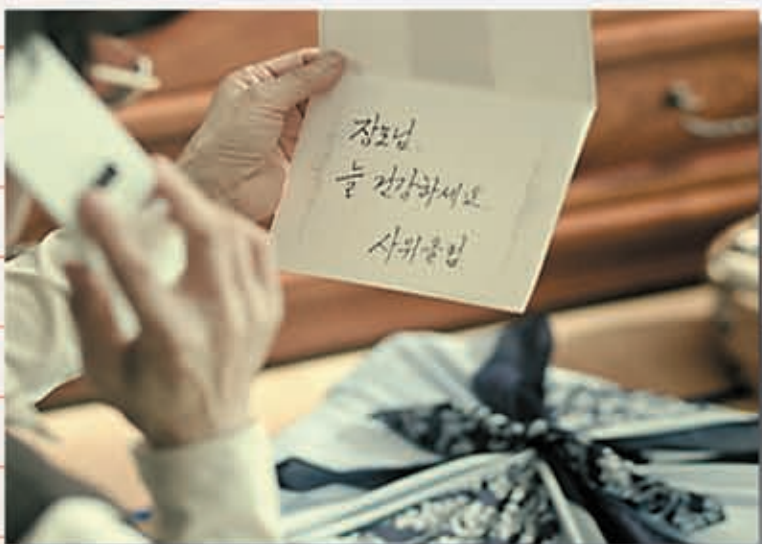


야단칠 땐 아들 편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부르나 봅니다

하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 줄
단 한 사람

당신이 행복입니다 **OK! SK**



아내는 어린 여자다



하지만



엄마일 때는 천하장사다

아내는 어린 여자다
엄마일 때는 천하장사다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천하장사가 되어 주는
내 아내

당신이 행복입니다 **OK! SK**

